

이철우 도지사, 예천시장에서 추석맞이 삼삼오오 장보기 펼쳐



28일까지 추석대비 특별방역, 2~3일간격 주요 공동이용시설 집중 실시

경상북도는 22일 예천5일장이 열리는 예천읍 소재 예천상설시장에서 추석 명절맞이 장보기를 코로나19사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삼삼오오' 형태로 진행했다.
도의 이번 추석맞이 전통시장 삼삼오오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힘들어 하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지역 민생경제에 안정과 활력 회복을 위해 실시됐다.

의 경기를 몸소 체험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쇼핑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역상황도 꼼꼼히 점검했다.
또, 시장내 한 식당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상인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석명절 민생현장을 직접 살폈다. 경북도는 '추석맞이 삼삼오오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는 유지하되 대규모 집중 장보기가 아닌 기관별 소규모 단위로 장보기 횟수를 늘려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종전의 실·국·본부단위로 이용하던 장보기를 과 또는 팀단위로 대폭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언택트 소비 추세에 따라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전통시장과 같은 온라인쇼핑몰 장보기 이용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으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의 발걸음이 줄어든 전통시장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

게 장을 볼 수 있도록 고객맞이 차원에서 시장 내 방역과 위생관리 등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역 추진상황을 시·군과 함께 점검했으며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을 추석대비 전통시장 집중 방역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생활방역단'을 비롯해 시·군과 상인회가 함께 2~3일간격으로 시장 주출입구와 고객쉼터,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정기장날인 5일장의 경우 그 전날에 반드시 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 있다"며 "상인들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경기자

이용호 의원, "의료사고, 의료분쟁원 통해 최소 3만원~최고 5억원 배상받았다"

최근 5년 간 의료사고 조정 접수 총 1만 1,606건 중 6,727건(58%) 개시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를 통한 의료사고 배상 성립 최고액은 5억 1,600만원, 최저액은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제도가 의료소송을 대신하면서 의료행위를 두고 불거진 갈등 해소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의료중재원 조정·중재로 성립된 가장 높은 배상금액은 5억 1,600만원으로, 2020년 종합병원 외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



한 5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이며, 접수일로부터 처리까지 86일이 걸렸다.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은 3억 5천만원으로, 2016년 상급종합병원 응급학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3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이며, 처리까지 111일이 걸렸다. 다음으로는 2017년 상급종합병원 내과에서 중상 악화로 사망한 30대 환자 측이 신청해 119일의 기간을 거쳐 3억 3,600만원을 배상받은 사례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성립된 가장 낮은 배상금액은 3만원으로, 2016년 피부과 의원에서 효과미흡을 두고 벌어진 의료분쟁에서 의료기관 측이 30대 환자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이고, 처리까지 56일이 걸렸다. 두 번째로 낮은 금액은 4만원이며, 2019년 70대 환자가 정형외과 의원을 대상으로 신청했고 93일이 걸렸다. 그 다음으로는 2020년, 마찬가지로 70대 환자가 정형외과 의원을 대상으로 신청했고, 105일의 기간을 거쳐

5만원을 배상받은 사례였다.
다만 의료중재원 조정절차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 발생 등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에만 자동 개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 모두가 동의해야 개시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쟁 대상 중 어느 한 쪽이라도 14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 신청은 자동 각하된다. 2016년 이후 2020년 8월 말까지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 접수 건수는 총 1만 1,606건으로, 이중 6,727건(58%)이 개시됐다. 분쟁 대상인 피신청인이 조정 응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747건(40.9%), 조정 신청인 스스로 접수를 취하지 않은 건수는 47건(0.4%), 나머지 85건(0.7%)은 접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중재원 조정·중재가 중대한 의료사고부터 의료효과 미흡

이남출기자

여야, 4차 추경 합의... 통신비 선별지원, 중학생 돌봄비 지원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교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유휴중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사회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

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각각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보다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할 날 바로 처리할 기록도 세우게 됐다"며 "기획재정부가 예산 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전순희기자



비대면 시대, 국민-정부 사이 더 잘 소통하는 법

"디지털 국민소통의 새로운 화두를 던지다" 주제로 5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디지털소통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 디지털 국민소통의 새로운 화두를 던지다'를 주제로 9월 23일(수) 오후 2시 <제5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정부 의정책소통에 대하여 국민과 기관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정부와 국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흥미에 센터장(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이 정책의 당사자인 국민의관점에서 새로운 채널을 활용한 소통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어 이승환 대표(주)대기업 대표)가 정책소통의 '임팩트'를 키워드로 소통의 방법, 성과 기준에 대한 기관의 고민을 뒤집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성은주무관(문화체육관광부)이 담당자로서 기획과정의 고민과 우선순위, 콘텐츠 기획의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한다.

이어 김영훈 대표(주)대학내일 대표)가 잘 쓰면 특이 되고, 잘 못 쓰면 특이 되는 '재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국민이 공감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책소통의 방향과 전략을 이야기한다.

2부에서는 전국 각 기관 홍보담당자의 고민을 소재로 참석자들이 아이디어를 나누며, 자유롭게 토론한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광화문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을 통해 9월23일 포럼 시작전까지 사전신청

Infographic titled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 어떻게 알 수 있나요?' with four stories: 1. 누구를 위한 누구의 소통인가?, 2. 정책홍보! 형식보다 임팩트를 높이는 게 중요하죠!, 3. 대한민국 정부의 유튜브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4. 동상이몽, 시작은 바로 그 '재미'입니다.

청을 해야 한다.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은 전문가와 관련 기관들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제안된 내용은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적절하고 효과적인 홍보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피부에 와닿고, 수요에 응답될 다양한 정책홍보 아이디어와 제안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평택시,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 추진

평택역 주변 쇠퇴하는 원도심 활성화 기대

평택시는 2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평택역 일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했다. 평택시는 각종 도시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으나, 평택역 주변 원도심은 거주인구 감소와 신도시로 상권이동 등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금년 5월 '평택역 주변 정비추진단'을 전담조직으로 신설해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 금회 발표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평택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의 중점사업으로 평택역 복합문화 광장을 조성한다.

기존 광장 내 복잡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이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매력적인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해 인접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2021년에는 역광장 아케이드 상가를 매입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평택역 광장 변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평택역 서측에 위치한 원평동 일원은 역사권 주거·업무 거점개발을 추진한다.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과 4차 산업 지원시설과 같은 주거·업무시설 등이 융합된 지역 개발이 주된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원평동 지역 유동인구 확보 및 경제기반 마련을 통한 역사권 균



형발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평택시의 오랜 숙원지역인 성매매 집결지에는 기능전환 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평택시 최초로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소와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 시스템을 구성·운영한다.

이와 연계해 유휴시설 매입과 앵커시설 도입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해당 지역의 개발여건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도시개발 등 자발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검토한다. 현재의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 문제뿐만 아니라 시내 교통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버스터미널 이전은 기존 여객터

미널 사업자와의 협의, 교통 접근성, 대체 집객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로 도시, 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속 실시해 내실을 다지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 시민 소통방안을 마련해 세부계획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간의 지역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평택시 관문인 평택역 일원을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랜드마크 공간이 되도록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경기도의회 권락용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 시 취득세 50% 감면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 346회 임시회에서 권락용 경기도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 각 정당에 전달 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취득세 감면 개선안'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됐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수도권 기준, 분양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취득세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경기도 성남 판교, 수원 광고 등 신도시에 분양전환을 앞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4억원을 초과해 실질적인 개선안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에 권락용 의원은 분양가격에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 한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권락용 의원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목표가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생애 첫 집을 마련할 때에는 분양가격에 상관없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락용 의원은 "앞으로 촉구 건의안을 전달 받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속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한 주거정책이 마련되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추적조사지원팀 파견

광명시가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동시에 추적조사지원TF를 급파하고 치밀한 역학조사를 통해 검사대상자를 선별해 대상자 전원에게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는 6천여명이 근무하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의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을 차단하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16일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직원 8명과 가족 3명 등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역학조사를 위해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광명시 추적조사지원TF팀을 급파해 17일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합동 역학조사팀은 1차 역학조사를 통해 검사대상자 854명을 선별해 전원 검체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2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어 추가 확진자 2명이 제2공장과 해오름식당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광명시는 17일 밤 12시부터 18일 새벽6시까지 2차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검사 대상자 1637명을 선별했다.

검사 대상자 1637명 중 338명은 지난 20일 검체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1299명은 21일 각 주소지별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했다.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연간 32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번 확진자 발생으로 16일부터 제1공장, 제2공장, 엔진공장 등 3개 공장이 조업중단한 상태로 광명시는 추적조사지원TF팀을 기아차 공장내부로 파견해 밤샘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현재 기아차 관련 확진자 수는 9월 21일 오



전 9시 기준 직원 11명, 가족 6명, 지인 1명 등 총 18명으로 20일 검사한 제1공장 접촉자 338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제1공장 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접촉자를 한시라도 빨리 파악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추적조사지원TF팀이

밤을 지새우며 역학조사에 매달렸다.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하루 빨리 공장이 정상 가동되길 바라며 광명시는 이를 위해 역학조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최정부/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임영식 / 부회장 박상찬 / 사장 박두석 / 편집국장: 최재은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트 701호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naver.com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가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퍼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02)2612-2959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팩 스: 02)2060-4147

맛 좋은 빛깔 좋은 영양고추와 영양고추로 만든 빛깔찬 고추기름

검색 사이트에서 만나다

사이소

검색창에 '사이소'를 검색하세요

청정 영양 원인

H.O.T 페스티벌 2020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트 www.cys.co.kr

문의전화 054-683-7300

2020 NPO 파트너 페어 / NPO 국제 컨퍼런스 사전신청 오픈

2020 NPO 국제 컨퍼런스 '전환을 통한 회복, 공존을 위한 연결'

지난 3년간 NPO 파트너 페어와

서울시NPO지원센터는 2017년 국내 최초로 개최한 NPO 파트너페어의 사전신청 오픈 소식을 밝혔다.

2020 NPO 파트너 페어는 오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5,000여명의 비영리관계자와 100여 개의 파트너 기관/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2020 파트너 페어는 NPO 국제 컨퍼런스와 동시에 진행하면서 NPO를 둘러싼 생태계를 한자리에 모아 조망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영리 섹터의 협력 파트너를 한자리에 모으고 시민사회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트렌드를 이끌어냄으로써 NPO 생태계를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연결 가능성을 통해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NPO 파트너 페어는 NPO의 장기적,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3년 동안 참가 부스의 수는 약 62%, 관람객 수는 약 72% 증가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룬 페어는 2020년, 10개 분야의 100개 부스에서 5일간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행복나눔재단,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소셜벨런스, 크레비스벤처스, 누구나데이터 등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화상미팅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

을 최소화해 더 많은 NPO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게 된 점도 눈에 띄어 보인다.

NPO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전환을 통한 회복, 공존을 위한 연결'을 주제로 COVID-19로 대표되는 전 지구적 위기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운동 방향과 방법을 모색한다.

반다나 시바, 리처드 월킨슨, 전치현의 기조제와 인권, 기후위기, 경제, 노동 등의 분야별 논의를 통해 위기를 재정의하고 대응에서 기회를 찾기까지의 과정을 실시간 중계로 만나볼 수 있다.

NPO 국제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주관해 온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사단법인 시민이 협력해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2013년부터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연결과 협력 플랫폼으로써 다양한 시민공익활동과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왔다.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장은 "뉴노멀의 시대에 시민사회가 서로 연결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NPO 생태계 지도를 어떻게 그려갈 수 있을지 토론하고 실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20 NPO 파트너 페어와 NPO 국제 컨퍼런스의 온라인 사전등록은 웹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10개 분야, 100개 부스가 온라인으로 화상미팅 진행, 비영리스타트업 6개 팀이 기획부스로 2020 NPO 파트너 페어에서는 공공기관/중간지원조직, 기업사회공헌/사회책임활동, 기부/투자, 전문가, 교육/컨설팅, 디자인, 모금, IT, 홍보/마케팅, 기획부스 비영리스타트업 등 총

100개 기관이 지원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비영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자라면 NPO 파트너 페어에만 참여해도 공익활동을 함께 할 파트너와 정보, 네트워킹을 한 곳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다.

기획부스 '비영리스타트업'은 서울시NPO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발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에서 출전한다.

비영리스타트업 4기로 선정된 6개 팀이 사회변화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와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환을 통한 회복, 공존을 위한 연결'을 주제로 열리는 NPO 국제 컨퍼런스는 COVID-19 위기 속에서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국내외 연사, 현장 활동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준비된다.



세션1에서는 '위기의 재정의 : 전환'을 주제로 반다나 시바, 안은정, 이유진, 한성안의 발표가 진행되고 세션2에서는 '위기의 위기 : 불평등'을 주제로 리처드 월킨슨, 권오성, 민길중훈의 발표가 이어진다.

세션3은 '위기의 대응 : 공존을 위한 연결'을 주제로 전치현, 임윤옥, 유희정의 발표가 진행되며 세션4는 '위기의 기회 : 행동의 재구성' '회복력'을 주제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대담이 실시간 중계로 방송된다. 고정화/기자

구미 인동동·고아읍 수영장 건립

구미시 인동동행정복지센터 부지와 고아읍 들성공원 일대에 '구미 국민체육센터'와 '고아읍 생활체육센터'수영장을 건립 중에 있다.

그 동안 주거밀집지역이나 수영장이 없던 인동지역과 고아읍은 수영장 건립 요구가 많았던 지역으로 급변 국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됐다.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

'구미 국민체육센터'는 구미시 인의동 1022번지 인동동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3,255㎡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다.

총사업비는 125억원으로 주요시설로는 길이 25m의 수영장 6레인과 어린이풀,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하게 됐다.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 '고아읍 생활체육센터'는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78번지 들성근린공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3,615㎡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130억원으로 주요시설로는 길이 25m의

수영장 6레인과 어린이풀,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되어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해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두 지역은 각각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특히 고아읍지역은 문성리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인구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고품격 여가 생활과 초·중·고등학교교육을 위한 수영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지역으로 그 동안 올림픽기념국민체육관, 근로자문화센터 수영장 등 원거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수영장 건립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 국민체육센터' 및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으로 도시적에 어울리는 여가활동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 증진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쁘고 앞으로 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형/기자



구로구, SNS·유튜브 마케터 양성해 사회적경제기업 돕는다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 마케팅 더욱 중요해져... 10, 11월 교육 실시

구로구가 '2020 주민기술학교 온택트, 온택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주민기술학교 온택트, 온택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기술학교 온택트, 온택트'는 SNS 마케터 양성 교육과 유튜브 마케터 양성 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사회적경제의 이해, 저작권 바로알기 등 공동과정과 마케팅 기법, 팀 과제·발표 등 개별과정으로 진행된다.

SNS 마케터 양성 교육은 10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열린다.

SNS 마케팅의 이해,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콘텐츠 제작 등으로 구성된다. 유튜브 마케터 양성 교육은 10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유튜브 마케팅 기초, 콘텐츠 촬영·편집 등으로 실시된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 경제와 방송 미디어 콘텐츠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이는 구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4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는 5만원이며 80% 이상 출석하는 경우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과정별 정원은 15명. 구로구는 신청서를 심사해 교육생을 선발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 장소도 개별 안내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전환할 수 있다.

구로구는 "수요생들을 사회적경제

2020년 주민기술학교

온택트, 온택트!

(따뜻할 온) 온택트!

<p>교육내용 SNS 유튜브 미디어 마케팅 기술 교육</p> <p>교육기간 SNS 마케터 양성과정 10/13 - 11/17 매주 화요일 14:00-18:00 6회차 교육</p> <p>유튜브 마케터 양성과정 10/8 - 11/19 매주 목요일 14:00-18:00 7회차 교육</p> <p>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p> <p>강의장소 관내 교육장 (개별안내)</p> <p>모집대상 사회적경제와 방송미디어 콘텐츠제작에 관심 있는 구로주민</p> <p>모집인원 과정당 15명 (신청서 심사 후 교육 참여자 선별)</p> <p>모집기간 9월 15일(화) ~ 10월 4일(일)</p> <p>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gurosecinfo@gmail.com</p> <p>신청서 다운로드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gurosec.or.kr</p> <p>최종발표 10월 6일(화) (개별 통보)</p> <p>교육비 5만원 (80%이상 출석 시 전액 환급)</p> <p>문의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70-4922-1105</p>	<p>SNS 마케터 양성과정</p> <p>사회적경제의 이해 저작권 바로알기 미스브레이킹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이해 및 콘텐츠 제작 페이스북의 이해 및 콘텐츠 제작 SNS 마케터 (7개)과정 팀(개별) 발표 및 피드백 SNS 마케터 최종 정리</p> <p>유튜브 마케터 양성과정 (소규모 열람)</p> <p>사회적경제의 이해 저작권 바로알기 유튜브 마케팅의 기초 유튜브 콘텐츠의 이해 콘텐츠 촬영의 이해 콘텐츠 편집의 이해 팀 발표 및 피드백 유튜브 마케터 최종 정리</p>
---	---

I-SEOUL U 구로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기업과 매칭해 온라인 홍보 활동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온라인 마케팅 기술도 배우고 사회적경제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프

로그래프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경남도 주요현안도로 국가계획에 반영위한 박차

지역별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 시기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국가도로 계획에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반영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현재 국도 5호선 기점 변경 건을 비롯한 3건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분주히 움직여왔다.

중점사업은 국도 5호선 기점 변경, 국도 5호선 거제-창원 해상구간 신설, 국도 77호선 남해-여수 해저터널 신설로 2028년 완공 예정인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국도 균형발전이라는 점과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거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경남도가 각별히 관리하는 사업으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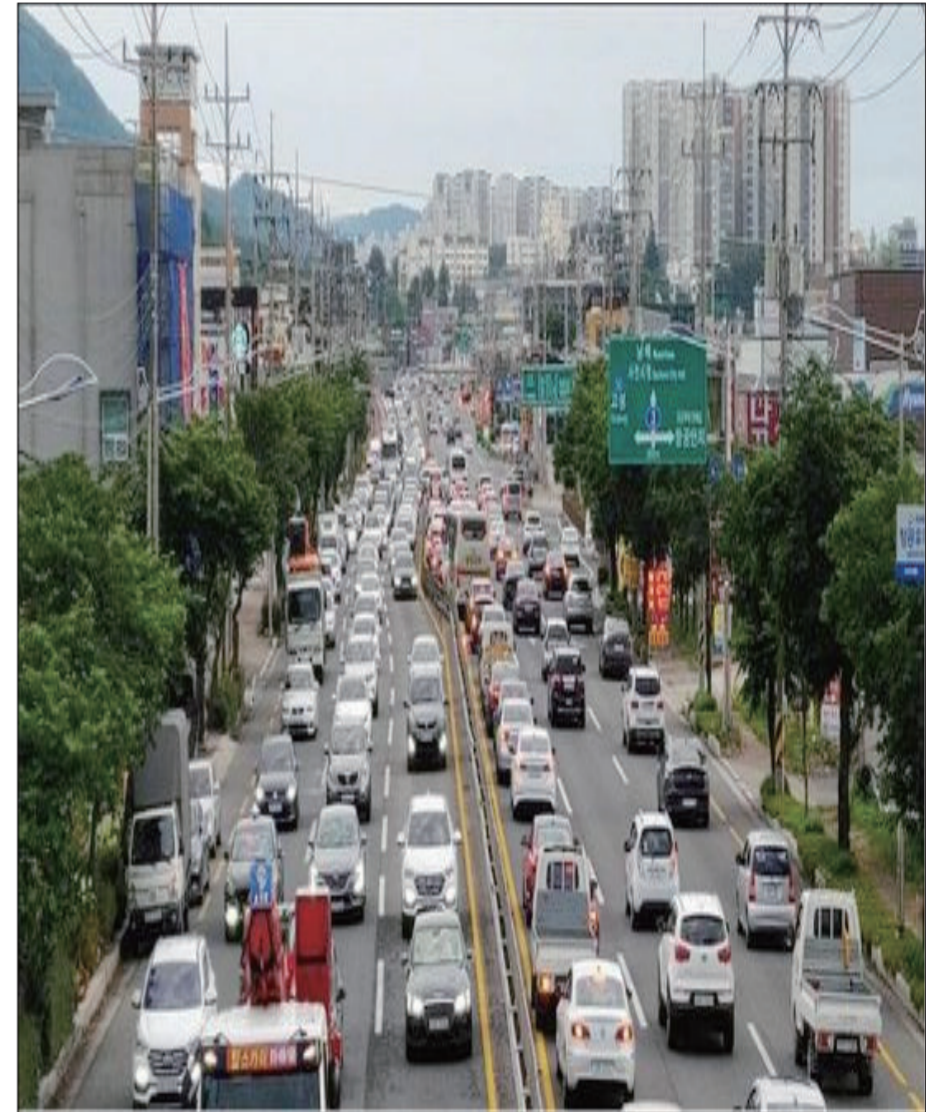
'국도 5호선 기점 변경 건'은 기존 기점인 거제 연초면에서 통영 도남동까지 6,3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41.4km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통영 도남관광지와 거제 해곡강 구간의 운행시간을 40분 단축하고 하루 평균 약 4,800대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 장목면과 창원 구산면을 잇는 '국도 5호선 해상 구간 신설 건'은 1조 1,620억원을 투입해 11.2km의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가대교와 함께 '부산-창원-거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환형도로망을 구축해 향후 조선·기계 산업의 물류 수송 여건 개선과 관광 수요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삼양동 구간에 연결도로를 포함한 7.3km 해저터널을 굴착하는 6,312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여수 산업단지로부터 발생하는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진주 정촌-사천 축동 간 국도 33호선 4차로 신설과 사천 사남-정동 간 국도 3호선 4차로 신설 사업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부 터 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혁신도시, 남부내륙철도 및 신진주역세권을 연결해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중심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주요 국도 건설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예산 편성과 사

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져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은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남부내륙철도의 성공, 영호남 상생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국토교통부, 국회 등 가능한 모든 기관과 협의를 통해 도민이 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오영광/기자

구미시, 상생 노사문화 정착으로 고용안정 앞장선다

기초자치단체 최초, 대리운전 노동조합 설립 인가

구미시는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노사문화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9만여명의 근로자가 있는 구미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근로자 중심 도시로 걸맞은 시정추진으로 노사안정,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책임을 다해왔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안정적인 노사협력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미시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생 노사문화 정착에 뜻을 모으는 한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초자치단체 최초, 대리운전 노동조합 설립 인가 구미지역 대리운전 협회는 '18. 12월 노동조합 설립 신청을 했으나 설립 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았다.

설립 신고 요건은 노동 3권을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어야 하는데, 대리운전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조직,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노동자의 도시 구미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우선 적용해 대리운전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19. 3월 사용자에 없는 구미지역 대리운전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수리해 근로자로서 갖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했다.이에 따라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20. 7. 17.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것에 비취될 때 구미시의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은 노동자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추진 의지와 행정 역량을 발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노사갈등 중재 선도적 역할

'19. 3. 4.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노사 간 단체교섭 중 노동조합 간부 3명을 포함한 5명에 대한 일방적 해고 잔업수당 50% 삭감, 근로면제 시간 1,500시간 삭감 등 적자 해소방안의 일방적 통보로 노사 간 쟁의가 발생했다.구미시는 노사평화 분과위원회를 조성, 사측면담 6회, 조속면담 5회에 걸친 중재를 통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노사민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후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형 구미일지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해왔

다.앞으로도 구미시는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올바른 노사문화의 확립, 지역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노동자 도시 구미의 상징적 공간 조성구미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리모델링 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원, 시비 2천만원을 확보해 노동자 교육장, 노동단체 사무실 및 휴게 공간, 노사민정사무국, 대회의실을 정비했다.이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 허브 역할을 수행할 노동자 도시의 상징적 공간으로 노동자가 존중받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자의 도시 구미로 한걸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9만여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수영장, 헬스장, 작은 도서관, 시청각실, 문화교육, 대강당, 야외 공연장 등 지역 밀착형 건강·문화·복지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춘 '근로자 문화센터'와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특별교부세 12억, 시비 6억 2천 5백만원을 들여 시설 개보수를 진행했다.

한 해 동안 중앙정부 예산 총 20억이 증액된 셈이다.'20. 4월에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에 지원하는'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해 개소했다.사무국은 상생과 혁신의 일터를 만들고 분규와 갈등이 없는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등 파트너십 형성의 중심점으로 기관단체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노동자 무료 법률지원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구미시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환경의 다양화 대응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 복지·문화사업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 각 주체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노사문화 정착과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행복주택 공급구미시는 현재 근로자 임대아파트 부지에 사업비 29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11층~15층 2개동, 총 25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2019년 4월 사업추진에 첫발을 내디딘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2020년 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주대책 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상반기에 착공, 2022년 말 준공 예정이다.새롭게 지어질 행복주택에는 주민공공체 회의실, 작은 도서관 등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시민의 보금자리 확충은 물론 구미의 도시재생 경쟁력을 높일 계



획이라고 전했다.장세용 구미시장장은 MOU 체결식에서 "주거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행복주택의 건립으로 주거안정 및 복지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집 걱정 없는, 기업하기 좋은 구미를 위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코로나19 극복 선제적 대응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4월 28일 11:00 구미시 근로자권익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구미시 노·사·민·정 상호협력 공동선언문'을 선포했다.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은 구미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노사민정이 상호협력을 통한 경제회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결의를 확고히 다졌다.이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기업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처음으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공동선언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 13 한국노총구미지부에서는 긴급 회동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악화된 구미공단의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기로 결의했다.이에 '고용이 보장되는 구미'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근길 시민·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수막, 피켓 등 길거리 홍보활동 대형 현수막 설치 노사관계 실천기업 릴레이 선포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했으며 또한 지역기업 생산 우수 완제품 이용 캠페인을 '20. 2. 14. ~ 2. 19. / 6일간 펼쳤다.또 구미시 공직자부터 솔선해 지역상품 애용과 대민홍보를 다짐하기 위해'직원교육 및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 전반의 붐업을 위해'우리지역 생산제품 애용은 구미사랑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주요 도로변 및 분

성공적으로 내디딘 성주군 작은결혼식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스물웨딩을 축하해네~

성주군은 올해부터 성주에서 새출발을 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작은 결혼식을 지원하며 지난 20일 첫 결혼식이 고려말 삼은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도은 이승인 선생 기념관이 있는 성주역사충절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결혼식은 웨딩아치, 버진로드, 덕담코너, 포토테이블 등 결혼식장 디렉팅과 차, 과일 떡 등 다과 케이터링을 알차게 준비한 한자녀더갓기 성주군지부에서 추진했으며 결혼식지원금은 한 팀당 300만원 정도이다.작은결혼식은 관내에 거주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관내 어디에서나 결혼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5회 더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

했다. 10. 17. 12시 성주역사테마파크와 10. 25. 12시 성주역사충절공원 등 대상자가 선정되어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딜가나 썰렁한 결혼식을 보다 특색있고 생명이 울려퍼질 것 같은 결혼식을 보게 되어 기쁘다는 하객의 축하속에 신랑 형남군은 소박하지만 의미있게 친지·우인들과 즐기는 결혼식을 만들고자 덕담추첨 등 소담스럽게 결혼식을 준비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관혼상제 중 가장 축복받는 결혼이라는 행사를 생명의 땅 성주에서 치른 것을 축복하며 "뒤이은 출산·육아도 다각적 혜택을 추진해 성주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형기자



합천군, 2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합천군은 합천향교, 초계향교에서 공기 2571년 을 맞아 21일 추기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합천향교 초현관에는 권병근 전교, 아현관 정재근 유림, 종현관에는 하재규 유림이 맡았으며 초계향교 초현관에는 차관암 유림, 아현관 김일석 유림, 종현관에는 이찬규 유림이 맡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지소 직원들의 협조하에 전원발열체,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향교내부 손소독제 비치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

저히 준수하면서 시행됐다. 향교 석전대제는 유교 전통의식에 따라 공자를 비롯해 유교 성·현인을 기리는 제사의식으로 성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군민에게 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향교는 춘추석전대제 외에 인성예절교육, 충효교육, 서예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한시백일장, 기로연 재연 문화행사를 실시하는 등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영광기자



서대문구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서울공동체상 수상

주민운영위원회가 '동네배움터 운영' 등 다양한 활동 자율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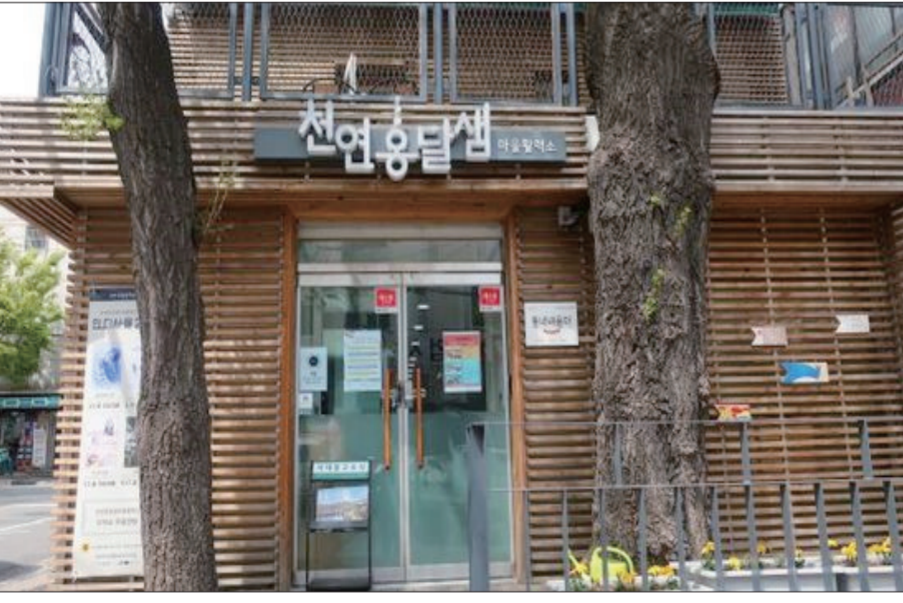
서대문구는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는 천연옹달샘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0년 서울공동체상' 수상 단체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은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보다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한 마을 공간과 모임에 수여되며 시상식은 서울마을주간 기념식과 함께 이달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천연옹달샘은 옛 천연가람장을 리모델링해 2017년 3월 8일 문을 열었다.주민이 주체가 돼 '주민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영리법인 등록을 했으며 서울시 및 서대문구와 운영협약도 체결했다.

위원회는 천연옹달샘 개방과 대관 동네배움터 운영 인디서울 독립영화 정기상영회 개최 천연중현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사업 응모 등 다양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독립문공예예술프로젝트, 천연중현도시재생축제 등 여러 지역공동체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곳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오가며 휴식을 취하고 동네소식을 나누기도 한다.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누구나 들러서 쉬어 가거나 모임을 할 수 있고 소규모 주방이 있어 간단한 음식도 함께 만들 수 있다.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경험이 풍부한 '공간지기'가 상주해 주민들의 이용을 돕는다.천연옹달샘은 세대를

아우르는 관계망과 주민 참여 확장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올 연말에 운영위원을 확대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분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선도적 마을활력소 공간인 천연옹달샘의 서울공동체상 수상을 축하하며 마을공동체성 회복의 지역 거점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홍성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비대면 온라인' 전환

홍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화상강의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며 하반기 프로그램은 일본어 회화 영어회화 그림책교육전문가 정리수업전문가 방과후 스터디지도사 충남학 프로그램 등 13개 과목이다.

수강생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무료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실시간 강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해 학습자의 교육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성환 교육체육과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학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

량을 키우고 배움의 열정을 가진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학습기회가 더 풍부

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주민의 학습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아산시, 포상금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7940만원 지역 경제에 환류

아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간 식당 및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을 통한 소상공인 경기 부양에 나선다.추석 명절 전후로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은 아산시가 2020년 신속 집행의 유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포상금 7,940여만원

으로 진행된다.시는 추석 전인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을 비롯해 추석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시청사 및 사업소 등의 구내식당을 휴무하고 외부 식당 및 재래시장을 적극 이용할 예정이다.특히 특정 식당으로의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국·소별로 안분한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게 된다.시 청사에서 거리가 있는 면 지역의 식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언근무제를 활용, 기존 중식 시간을 60분에서 90분으로 연장 운

영해 소속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올해 초 경찰인재 개발원에 우한교민이 수용되었을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주간 외부 식당 이용 캠페인을 운영해 3,800만원의 지역 경기 부양 효과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민간식당 이용 캠페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전북도, 부안군 왕등도해역 불법어구에 대한 계고서 공시송달

도내 해역 뺨침대를 사용한 자망 10.3일까지 자진철거 1차 계고

전북도는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어구를 일제히 철거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자로 소유주 미상인 불법어구에 대해 자진철거 계고서를 다음 달 3일까지 공시송달 했다.

도내 해역에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뺨침대를 붙인 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철산어장인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는 수산자원 불법포획 및 어장선점 등을 목적으로 타 지역 어선들이 10여 년 전부터 낚자망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수산자원의 고갈과 어종 간 갈등·분쟁 유발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8월 20일 불법어구 철거사업 추진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이행명령 공고

를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해 해당 해역에 설치된 불법어구가 점차 철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어구에 대해 전북도는 10월 3일까지 자진철거 계고 조치를 진행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또한, 계고 기간이 끝난 후 미철거 된 불법어구에 대해서는 2차 계고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으로 설치된 낚자망을 강제철거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낚자망 불법 설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지도·단속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도내 해역의 수산자원 관리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불법어구 철거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행정대집행에 대

한 홍보 및 계고 활동을 병행해 불법어구에 대한 어업인들의 자진철거 등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여주시, 불법 방조개기 집중 단속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 보내 불법 방조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거를 단속을 당부하는 한편 영리 목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부과 횟수도 연2회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10월부터 불법 방조개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위 말하는 ‘방조개기’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주택 내부에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구·세대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적기준에 허용되는 가구·세대수에 맞춰 건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적은 수의 가구·세대수로 건축한 뒤 임대 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불법 방조개기를 자행하다보니 방음, 방화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주차난을 초래하는 등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매로 집

이 넘어가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101호를 쪼개 만든 102호에 입주한 임차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상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101호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집에 문제가 생길 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됐으며 점검 중 불법 방조개기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성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서울시 성북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 근절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의 재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위해 2020년 09.17.부터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자율점검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가 스스로 감시원의 입장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등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성북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892명이며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 844개, 중개인 42개, 중개법인 6개소이다.

이들 개업공인중개사는 구가 지정한 점검 항목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자율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나 형식적으로 제출할 경우 구가 직접 기획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항목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와 게시된 ‘부당표시·광고 유형’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게시한 시세담합, 시세 교란행위 확인 여부 등 부동산 거래신고의 기간내 신고 여부 중개사무소에 등록증, 자격증, 보수요율표, 손해배상책임 가입증서 게시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법정서식 사용 및 작성방법 준수 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교부 및 보관여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안내

기간
2020.09.17.(목) ~ 11.27.(금)

대상
성북구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892명

위치
성북구청 홈페이지 > 마을생활정보 > 부동산종합정보 > 부동산정보 > “중개업소 자율점검”

문의
지적과 02-2241-4613

자율점검하러 가기

보조원의 고용시 고용신고 여부 자기물건 직접거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 탈세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여부 등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방법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오른쪽 상단 배너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는 전체 858개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가운데 97%인 834개 기관이 자율점검에 참여했으며 미실시 기관 24개 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자율점검은 코로나 시대에 비접촉으로 개정시행된 관련법규와 정책 등을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스스로 감시원의 입장에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했다으므로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만들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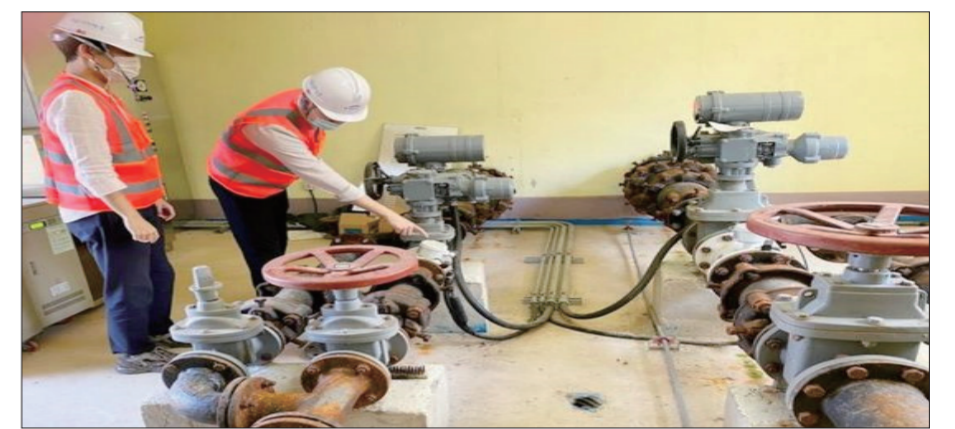
김현일기자

나주시, 추석맞이 상수도시설물 일제 점검

25일까지 광역상수도 배수지, 수도시설 등 128개소 대상

나주시가 추석 연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상수도시설물과 광역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의 주 생활식수원인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광역상수도 배수지 6곳과 소규모 수도시설 122곳 등 총 128개소다. 가압장, 소독시설, 배수지, 관정모터펌프, 관로 등 상수도 시설 안전점검 및 수질관리, 수돗물 다량 사용을 대비한 수량 확보 등에 중점을 둔다.

또 명절 연휴 수인성 질환 방지와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주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시정 종합상황실 상수도 급수대책반과 수자원공사 나주시사와의 긴급복구 기동처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양산시, 과대포장 행위 집중점검 실시

양산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선물 세트가 집중 유통되는 관내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잡

화류 등 명절 선물 세트 등이다. 현장측정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은 1차로 수거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인상, 자원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 구매를 지양하고 제품의 질로 선

택하는 현명한 소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전복** **대파** **물금**

농수산물은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오산시 '오색전' 미등록가맹점 연말까지 등록의무화

오산시는 지역화폐 '오색전'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가맹점 등록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이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지역화폐 '오색전'은 그동안 신용카드 가맹점인 경우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 가맹점 등록 없이도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반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대형마트, 유희·사행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기존 가맹점주는 올 연말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며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 당일 가맹점으로 등록된다.

10월 5일 이후 개업한 신규 가맹점주는 조례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쳐 신청일 이후 7일 안에 등

록이 완료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결제가 제한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가맹점 등록 사이트를 통해 본인 확인 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거나,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또는 현장방문 마케팅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가맹점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문자발송, 시 홈페이지, SNS, 지역커뮤니티 및 관련 단체 안내 등을 통해 다각도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곽상욱 시장은 "현재 오산시는 약 70%에 이르는 시민들이 오색전을 이용 중"이라며 "오색전의 원활한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들이 많이 등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광명시, 추석명절 집에 머무르는 시민을 위한 비대면서비스 가동, 심리방역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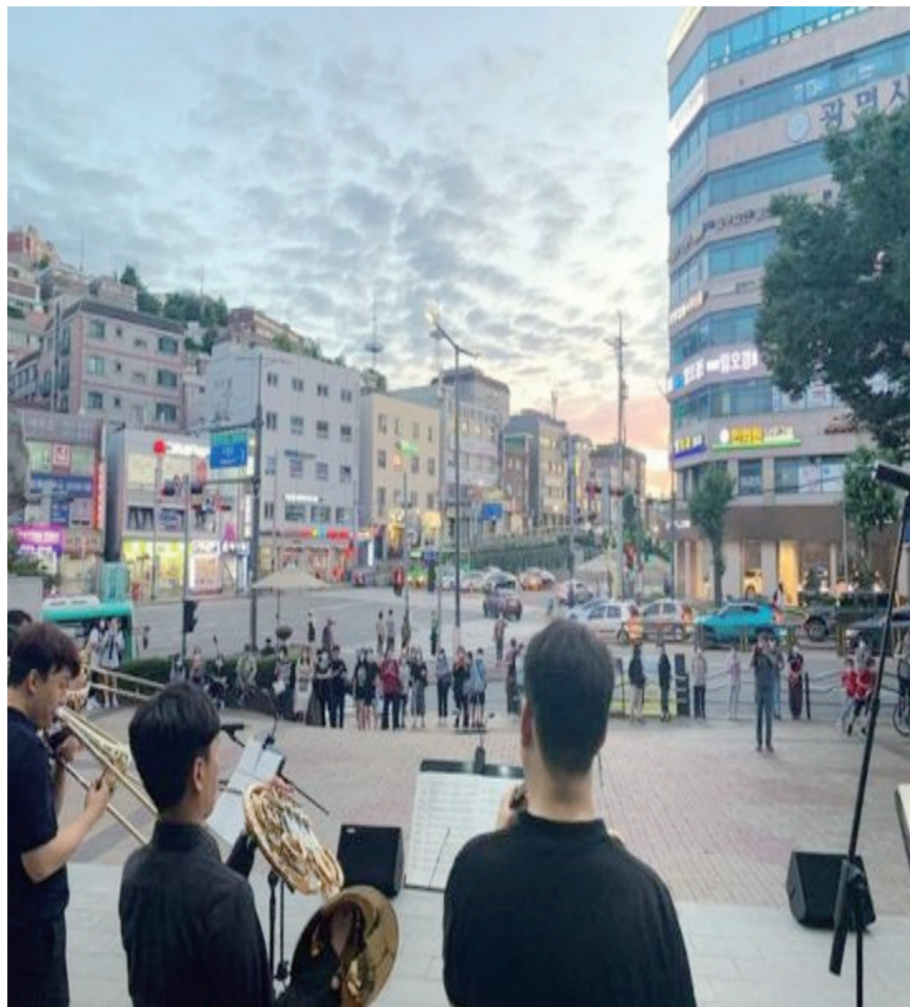
9.21.~10.10. 관내 15곳에서 '마음치유 길거리 예술공연', 버스킹 공연 형식으로 열려

광명시가 오는 추석 고향대신 집에 머무르는 시민의 심리 방역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관내 천 근린공원, 광명전통시장, 도덕파크광장 등 관내 15곳에서 '마음치유 길거리 예술공연'을 진행한다. '마음치유 길거리 예술공연'은 관내 11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해 코로나19로 대면 공연이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춰 시민들이 오며 가며 들을 수 있도록 버스킹 공연 형식으로 오케스트라, 전통무용, 민요, 국악 등 다양한 장르로 진행할 예정이다. '마음치유 길거리 예술공연'을 직접 제안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추석명절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광명 시민에게 이번 길거리 공연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시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코로나19의 단계별 상황에 맞춰 더 많은 공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광명시는 스마트도서관 4개소 대출권수를 1인 2권에서 5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비대면 도서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올 해 추가된

시요일 콘텐츠를 포함해 전자책, 오디오북, 도서요약 및 북세미나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전자책과 오디오북, 시요일은 도서관 정회원이어야 하고 도서요약과 북세미나는 준회원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광명시는 추석명절 시민이 야외 휴양 및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덕산 캠핑장, 골프연습장, 다목적운동장, 시립체육시설을 운영한다. 도덕산캠핑장은 추석 연휴 내내 정상 운영하며 골프연습장은 9월30일과 10월2일은 단축운영, 10월1일 휴장, 10월3일과 4일은 정상운영한다. 다목적운동장과 시립체육시설은 10월2일 단축운영, 10월3일 4일은 정상운영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올해 추석은 집에 머무르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 심리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명시의 다채로운 비대면 서비스로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순희, 최정부기자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상권전수조사 실시

상권전수조사, 특구 발전 시책 추진 위한 기초자료로 쓰여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오는 12월20일까지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를 대상으로 상권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지난 2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상권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2주 미뤄진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으며 중국인 3명, 러시아에서 귀환한 한국인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 조사원은 상가의 업종과 상호명, 고용인원, 대표자국적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원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상권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연간 약 5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의 유일무이한 다문화 체험 명소로 주말이면 은행 송금, 식료품 구입 및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 주민이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다.

상권조사는 2009년 특구로 지정된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1천356개소 다문화마을특구 내 상가를 전수조사 했다.

조사를 통해 외국계 업소분포, 상권변화 등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특구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하며 특구발전 시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상권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해 통계적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안동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상권전수조사

에서 수집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선도적인 다문화마을특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2020년 부천시민 독후감 공모 기간 연장

마감 기한 당초 9월 29일까지에서 10월 31일까지로 1달 연장

부천시립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운영 중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부천시민 독후감 공모 마감 기한을 당초 9월 29일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 공모 부문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 등 4개 부문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초등부는 그림을 포함한 300자 이상의 독후감상화와 600자 이상의 독후감을 제출할 수 있다. 중등부 이상은 자유 주제로 A4 2장 내외의 1,000자 이상의 독후감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가까운 시립도서관 13개소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및 부천시 독서마라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등 3가지다.

독서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경우, 독서기록카드를 연계해 쉽게 응모할 수 있다.

수상 결과는 독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1월 16일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올해는 별도의 시상식 개최없이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 등 총 16명에게 부천시 장상을 개별 전수할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립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휴관했지만 시민들이 24시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 등 온라인 독서서비스를 확대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상

강화군, 온수리 땅콩회전교차로 무지개 경관조명 설치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성 향상 "무지개 반딧불등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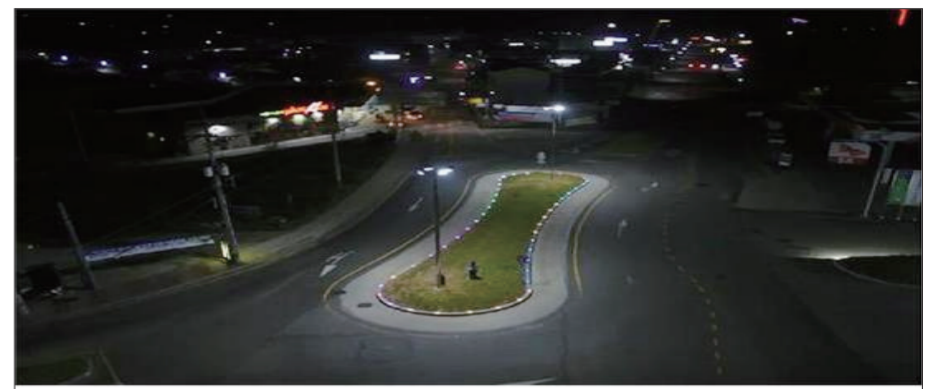
강화군은 길상면 온수리 땅콩회전교차로에 무지개 색상 LED 경관조명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운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회전교차로 경관조명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땅콩회전교차로는 지난 18년 5월 교통체증 완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온수리 부정형 4지 교차로에 설치됐으나, 회전 주행거리가 일반 원형 회전교차로보다 길어 교차

로 진출입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불편함이 있었다. 군에서는 회전교차로 내에 2개의 조명탑과 7가지 무지개색상의 LED 유도등을 설치해 파노라마 형식으로 차량의 진행방향을 밝혀, 운전자들의 감속을 유도하고 초행길 운전자도 교차로가 있는 것을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길상면에 거주하는 A 씨는 "교차로 주변이 훨씬 밝아지고 유도 LED 등으로 운전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야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와 병행해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가 자랍니다' 소식지 모바일 웹진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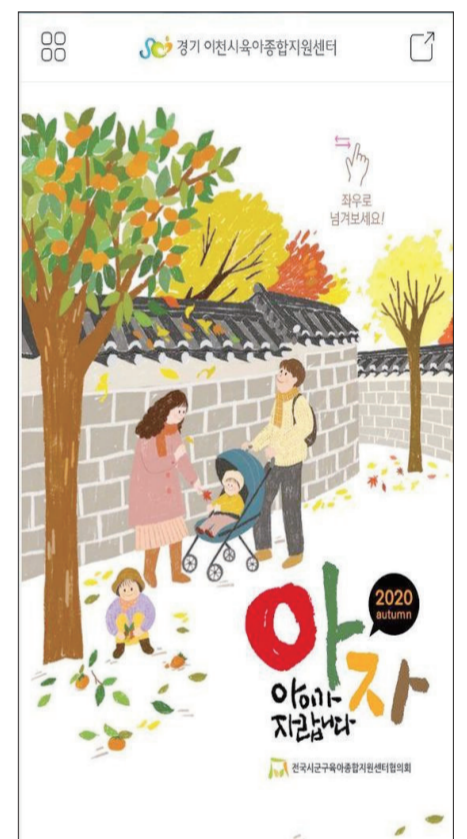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모바일 시대를 맞아 웹진 '아이가 자랍니다' 소식지를 오픈했다.

코로나로 대면활동이 자제된 시점에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장소 및 지면에 제한 없는 모바일 소식지를 통해 임신, 출산과 육아, 보육 등에 관한 이천시의 보육정책 및 다양한 육아소식을 이천시민에게 제공한다.

지면으로 된 아자 소식지는 지난 9월 4일 유관기관, 어린이집, 관내 주민자치센터, 관내 아파트관리실, 이천시청 등에 우편으로 배포했다.

소식지는 이천시 부모님들이 육아에 대한 풍성한 볼거리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도록 계절에 따라 한 해에 네 번 발행 증으로 발행 시마다 다양하게 준비한 이벤트도 만나볼 수 있다.

박상찬기자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상권전수조사 실시

과의 단절감을 호소하는 요즘,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 문학적 감수성을 극복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부천시립도서관
Buscheon City Library

2020년 부천시민 독후감 공모 (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운영 중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독후감 공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2020. 3. 2.(월) ~ 2020. 10. 31.(토)

심사: 11월 중 / 발표: 11.16(월) 홈페이지 공지 / 시상: 12월(개별수령)

시흥시 해로·토로 우리동네캐림픽 1등 도전

시흥시 대표 캐릭터 '해로·토로'가 전국 캐릭터 대상 선발대회인 제3회 우리동네 캐림픽 예선전을 당당하게 통과, 본선에 진출해 지역부문 전국 1등 캐릭터에 도전장을 던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우리동네 캐림픽'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대표 캐릭터 가운데 최고의 캐릭터를 뽑는 캐림픽 올림피아드이다.

해로·토로를 통해 시흥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대회의 본선전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총 32개 캐릭터가 본선에 진출한다.

온라인 투표는 9월 21일 9시부터, 10월 5일 오후 6시까지 우리동네 캐릭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역/공공부문 1캐릭터씩 투표가 가능하다.

해로·토로는 지역부문 캐릭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인증샷을

제출하면 추첨을 거쳐 300명에게 해로·토로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해로·토로에 투표한 후 링크를 통해 투표를 인증하면 응모된다. '해로와 토로'는 귀여운 외모와 예능감을 무기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근한 캐릭터로 다가가고 있다.

특히 시흥의 관광명소 홍보는 물론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해로·토로의 시흥시 홍보대사 활약상은 시청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성 시흥시 홍보담당관은 "우리동네 캐림픽에 출전한 '해로와 토로'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전국에 시흥을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김상돈 의왕시장, 놀이환경 개선위한 취약 어린이놀이터 현장점검

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난 18일 의왕시 소재 공공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 시장은 부곡동 금천마을과 오전동 주택가와 평생학습관에 위치한 놀이터 3곳을 점검했다.

이 3곳은 의왕시가 국제아동권리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함께 시 전체 공공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놀이환경 진단조사에서 이용자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온 곳이다.

놀이환경 진단조사는 지난 6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아동·시민 조사단 '놀이터 프렌즈' 79명과 전문조사원 15명이 놀이터를 직접 방문해 접근성, 놀이성, 안전성, 환경현황 등을 평가한 조사로 3곳의 놀이터는 공간 및 다양한 놀이기구 부족, 차량사고 위험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상돈 시장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재배치, 안전시설 설치 등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해 조치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시는 앞으로 이날 점검한 3곳의 놀

이터 외에도 시의 전반적인 놀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놀이터 개·보수와 함께 다양한 놀이문화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놀이환경 진단조사 결과를 '놀이터 프렌즈'와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놀이환경 진단조사 간담회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중에 있다. 놀이환경 진단조사 온라인 간담회의 접속 링크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담회는 김상돈 시장과 이수경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국내사업부장의 대답, 놀이환경 진단결과, 상·하위 놀이터 등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김상돈 시장은 "동네놀이터는 아동들과 시민들 누구나 편하게 와서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어야 하기에 그렇지 못한 곳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시민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의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 2021년 문화재 야행 공모에서 지자체 중 최고 금액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국비 4억원 지원받아 총 10억원 사업비 확보

인천 중구는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이 2021년 문화재 야행 공모에서 선정된 42개 지자체 중 최고 금액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이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2021년 문화재 야행 공모사업에서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42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이 최고 금액의 국비보조금을 받는다.

지역 문화재 및 문화시설 야간 개방 등 특화 콘텐츠를 활용해 대표적인 야간관광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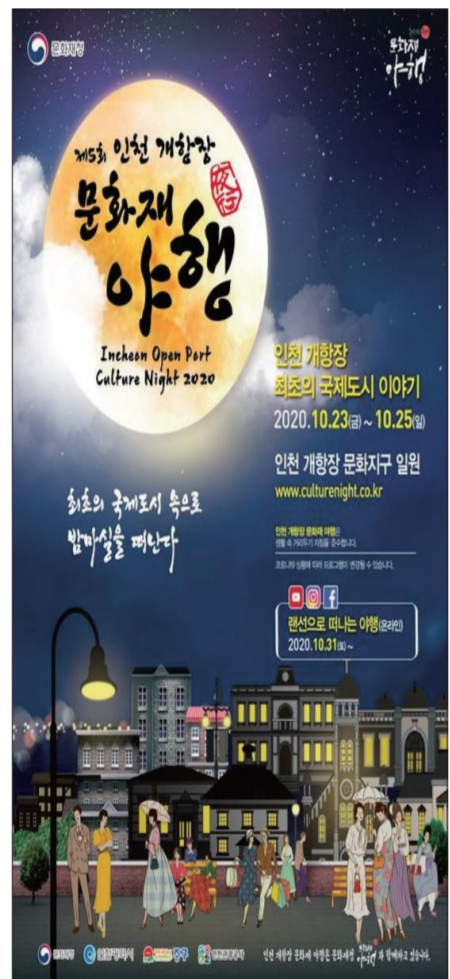
2020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 야간개방, 도보프로그램, 역사적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한 '랜선으로 떠나는 야행'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일대에서 개최하며 10월 3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랜선으로 떠나는 야행'을 공식홈페이지에서도 만날 수 있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선정된 지자

체 중 최고금액의 국비 지원은 우리 인천 개항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지구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이 대한민국 대표 야간문화관광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꽃게할아버지와 새우할머니' 소래포구 홍보 나서



대한노인회인천남동구지회 취업지원센터는 인천형 노인일자리사업인 '꽃게할아버지와 새우할머니 홍보 나레이터'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꽃게할아버지와 새우할머니 홍보 나레이터' 사업단은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소래포구를 홍보하고 거리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계획됐다. 사업단 명칭은 소래포구의 상징인 꽃게와 새우에서 착안했다. 남동구지회는 지난 8월 한 달간 남동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아 총 16명의 참여자를 선발하고 이달 9일 사업단 발대식 및 활동·안전교육을 진행했으며 14일부터 소래포구 인근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사업단은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상 안전을 위해 비대면 홍보 전략을 수립, 소래포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을 피켓과 어깨띠를 활용해 알리고 있다. 이창순 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우리 어르신들이 솔선수범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인천 명소인 소래포구에서 홍보와 관광객 안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일조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꽃게할아버지와 새우할머니 홍보 나레이터' 사업단은 현재 소래포구역과 소래포구 어시장, 그리고 소래역사관 주변에서 활동을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 상회와 협의해 소래포구 어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부평구, 코로나19 예방 음식점 테이블 가림막 설치 지원

부평구는 21일 음식점 내 비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부평지역 일반음식점에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음식점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으로 인한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구는 손님이 가깝게 맞닿을 우려가 높은 합바식당과 뷔페식 운영 형태의 업소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섰다. 청천농장이나 공사장 주변 합바식당 등 재정·위생적으로 취약한 업소는 각 20~30개, 기타 일반 음식점은 3~5개 일부 테이블에 대한 가림막 설치를 시범 지원해 업체 자체적으로 모든 테이블에서 운영하도록 유도했다. 가림막 지원을 받은 한 음식점 관계자는 "가림막 지원 덕

분에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며 "손님들이 좋아하니 우리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시 최초로 음식점 가림막 설치 지원을 시작했다"며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생활방역 '안심식당' 지정·운영 사업을 통해 식당 이용객과 종사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국민건강보험 40주년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작은실천~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 41세~만64세 의료급여세대원
※ 검진주기 :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에 1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사 (B형간염검사, 골밀도 검사, 정신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상담을 실시

암검진

- 대상자 :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위암 (만 40세이상, 2년주기)
- 자궁경부암 (만 2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유방암 (만 4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간암 (만 40세이상 고위험군, 6개월주기)
- 대장암 (만 50세이상, 1년주기)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부터~7개월까지의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 활용 안내

「민원24」(www.minwon.go.kr)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생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결과를 접수원료한 것에 한함)
- 신청방법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 동의서 작성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시 가능
- 대상면허 : 1종 보통면허, 2종 운전면허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안내

검진대상 : 9세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24세는 다른 국가검진과 중복 불가
검사항목 : (기본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구강검사
(추가검사) 매독혈청반응검사, HIV항체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학교밖 청소년 검진관련 문의 (유선전화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콜센터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고객센터 1577-1000

은빛 억새물결과 붉은 단풍으로 가을철 힐링을 선사하는 화왕산과 관룡사

창녕군은 군의 관광자원을 대외에 알리고 새로운 관광장면 르네상스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창녕을 대표할 수 있는 창녕9경을 2019년도에 선정해 발표했다.

‘창녕 구경오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대표적인 관광지로 선정된 곳은 우포늪과 따오기 화왕산 역사와 진달래 부곡온천 낙동강 유채축제와 남지개비리길 산토끼노래동산과 우포잡자리나라 만옥정공원과 진흙왕척경비, 솔정리동산삼층석탑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3·1민속문화제와 영산만년교 관룡사와 용선대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창녕 9경 중 비대면 야외 관광지로 안전하게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가을철 아름다운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화왕산은 경남 창녕 동쪽에 위치한 해발 756.6m로 지역민의 영이 서려있는 산이다.

‘큰 불의 피’란 뜻을 가진 화왕산은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 여름에는 푸른 녹음과 계곡, 가을에는 은빛 억새물결, 겨울에는 설경으로 4계절 구분 없이 관광객이 봄비는 명산이다.

그중 가을철 억새꽃은 시기별로 달리하는 빛깔로 장관을 연출한다.

처음 억새는 9월 말에 꽃을 피워 시간이 흐르면서 갈색으로 바뀌고 다시 은색으로 나중에는 흰색으로 변한다.이와 같은 변화로 억새는 시간의 흐름이 한 곳에서 모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화왕산이 가진 매력은 억새뿐 만이 아니다.화왕산에 오르면 2~3m 높이의 돌담으로 된 화왕



산성이 주위를 감싸고 있다. 축성시기는 불확실하지만 가야시대의 성으로 추정된다.

당시 화왕산성 안에는 구천삼지, 즉 9개 샘과 분화구가 변한 3개의 큰 연못이 있었다.

지금은 억새가 우거져 9개 샘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3개의 연못은 일부 발굴돼 보존돼 있다.이 삼지를 용지라고도 부른다.3개 연못 중 가운데 가장 큰 연못에서는 가야시대 토기와 군사무기·말발굽·호랑이뼈 등이 나와 이곳에 예전부터 군인들이 상주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화왕산성 길 곳곳에서는 가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 파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이 용지는 창녕 조씨 시조 조계룡이 태어났다는 특성 설화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목마산성과 드라마세트장, 모자바위, 연인바위 등이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이다.

‘창녕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관룡산 자락에 자리 잡은 관룡사는 뒤로는 붉게 물든 단풍과 병풍바위가 공간의 흐름을 있게 하고 앞으로는 셋노란 은행나무 고목이 시간의 흐름을 있게 한다.모든 것이 한 폭의 산수화 속 그림과 같아 창녕의 가을정취를 한껏 풀어낸다.관룡사는 과거 통일신라시대 8대 사찰이며 현대 경남 전통사찰 1호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고찰로서 신라

정동호기자

사천시새마을회, 한가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개최

사천시새마을회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9월 21일 시청 노을광장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지난 8월부터 관내 14개 읍면동 협의회, 부녀회, 직·공장, 문고 회원 등 800여명의 새마을 가족들이 팔복을 팔아 모은 백미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안화영 사천시새마을회장은 “많은 분들의 뜻이 모여져 이렇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나눔을 실

현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송도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한해지만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 적극 참여해준 사천시새마을회 회원들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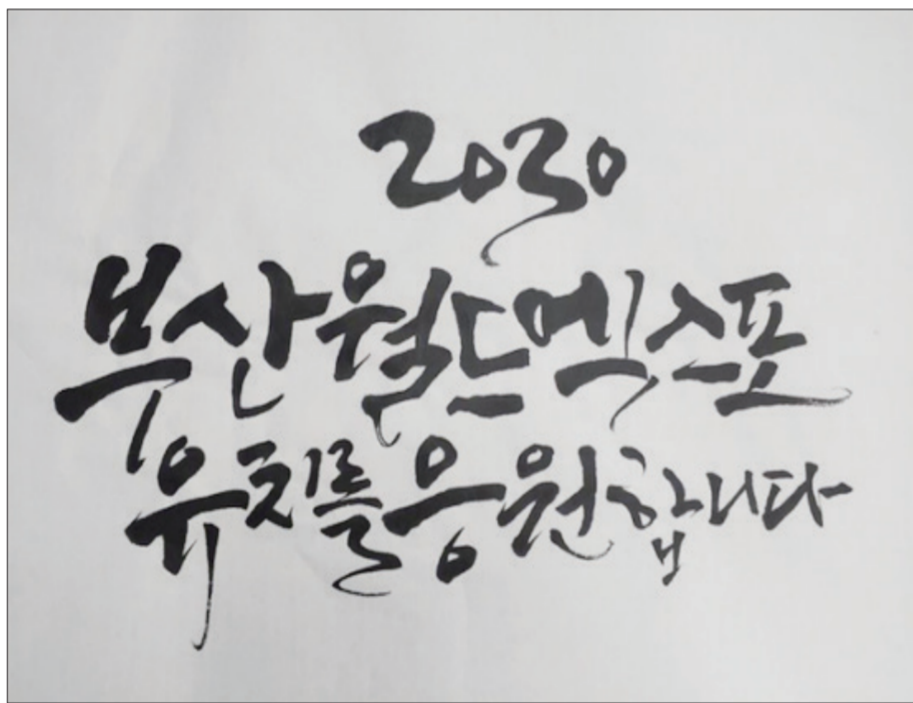
남경영기자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멋글씨 공모전 수상작 20점 선정

대한민국 첫 등록엑스포, 전 국민의 손으로 함께 이룹니다

부산시와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30월드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응원 멋글씨 공모전’의 수상작 총 20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8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29일간 진행했으며 총 156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작 14점을 선정했다.최우수상에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염원을 유려한 필력으로 표현한 중견의 역량이 돋보인 수작”이라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은 최미정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수상자 명단은 부산시,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및 입선작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상식은 개별로 진행한다.한편 이번 멋글씨 공모전은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를 끌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할 목적



으로 기획됐다.수상작은 10월 중 부산시청 1층 로비에 전시될 예정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홍보플랫폼을 통한 홍보, 각종 홍보물품 제작 등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19년 11월 출범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범정부유치기획단과 긴밀히

협력해 훌륭하게 계획을 짜고 빈틈없이 준비해 반드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면서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원대한 도전에 부산 시민은 물론 전 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광남/대기자

BNK경남은행, 창원시에 추석맞이 누비전 7000만원 기탁

저소득가정 1400세대에 추석 차례비 보태

창원시는 21일 접견실에서 BNK경남은행 추석맞이 누비전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BNK경남은행이 어려운 이웃들의 훈훈한 명절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누비전은 저소득가정 1400세대에 5만원씩 읍면동을 통해 전달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NK경남은행은 매년 설, 추석명절에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쿨박스, 생필품키트, 장학금 전달, 선봉기, 김장지원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해오며 지역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원 경남은행 상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저소득 가정의 추석 차례비용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다”며 “어려운 시기 힘내시고



다함께 잘 헤쳐 나가기를 바라며 경남은행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허성무 창원시장은 “우리지역의 대표 은행으로서 변화하는 지원에 감사하다”며 “도움

이 필요한 시기마다 시민들을 위한 아낌없는 나눔에 앞장서 주셔서 늘 마음이 든든하며 앞으로 변함없이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의 중심에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호기자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 25일부터 시범운영

진주-사천지역 통행 시외-시내버스 간 환승시 1450원 요금 할인

진주시는 진주시와 사천시를 오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환승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진주-사천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를 오는 9월 25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공식 시행일인 11월 이전에 시외-시내버스 간 환승할인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시범운영 기간부터 실질적으로 진주와 사천을 통행하는 환승 이용자에게 1450원의 요금할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진주시의 인접 지역 간 동일 경제생활권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은 조규일 진주시장의 민선7기 현안사업으로 경남 서부권 중심 도시간의 광역환승체계가 마련된다는데 의미가 크다.진주시는 그 간 경상남도·사천시와 함께 광역버스 기능을 하는 시외버스와 양 지역 시내버스간의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환승규칙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지난 5월 26일에는 사천터미널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김경수 도지사, 송도근 사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사천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 6월부터 환승시스템 개발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 시스템 개발을 모두 마쳤다.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는 진주시와 사천시 두 도시 간을 통행 할 때에 시외



버스와 시내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다른 버스로 환승할 경우 환승하는 버스요금에서 1회에 한해 1450

원을 할인해 준다.다만,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환승할인 혜택을 볼 수가 있으며 동일 노선에 대해서는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환승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환승요금 할인 혜택에 따른 손실금액은 경남도가 30%의 예산을 지원하고 진주시와 사천시가 각각 35%를 부담하게 된다.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출·퇴근, 통학 등 정기적으로 두 지역을 통행하는 이용자는 월 6만3800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지역 간 편리한 환승체계가

구축되어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인적 교류가 보다 더 활발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승용차의 도심 진입량이 줄어들어 교통체증 감소와 대기오염 저감 등 사회·환경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 구축은 진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사천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국에서 모범적인 대중교통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평기자

거제면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새롭게 태어나다

거제면보건지소 신축 등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거제시는 급증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 충족과 시민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거제면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새롭게 신축한다.변광용 시장은 거제면 보건지소가 1993년 신축 후 건물 노후와 공간 협소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해 주 1회 진료기능만 수행하고 있었다.을 안타깝게 생각해 다각도로 예산 확보를 모색하다가 ‘2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신청하고 국회와 관계 부처를 방문, 사업의 타당성

과 필요성을 강조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국·도비 16억 7천만원을 경남도내에서는 최고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21년도에 약 28년만에 새로 신축되는 거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청사의 규모는 2층으로 진료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과 만성질환관리사업, 이동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선정으로 거제시는 산발보건지소 개보수와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3개소에 의료장비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변광용 시장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공보건 환경조성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특히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지역주민의 의료 공공성과 건강 형평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영주시, '내몸에 맞는 영주 농특산물 36.5초 영화 공모전' 실시

북위 36.5소백산을 당신에게

경북 영주시는 영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소통하는 문화 콘텐츠를 조성하기 위해 '내몸에 맞는 영주 농특산물 36.5초 영화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북위 36.5°에 위치한 청정지역 영주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재로 사람의 체온과 같은 36.5초 분량의 단편 영화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대상 한명 500만원, 최우수상 2명 300만원, 우수상 6명 150만원으로 총상금 2천만원에 최대 9작품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촬영 장비나 기법에 제한은 없지만 공모기간 이내 제작된 참가자 수 수 장작물이어야 한다.

심사는 영상 분야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작품성, 기술성, 활용성 등을 평가하며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은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영주시에서 2차 저작물로 재가공해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한 영주시 홍보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공모전



영주 농·특산물 36.5초 영화 공모전
2020.9.14. - 11.13.

공모주제 영주 농특산물(사과, 인삼, 한우, 인견 등)을 긍정적으로 알리는 내용

공모분야 단편영화

접수기간 2020.9.14.(월) - 11.13.(금) 18:00까지

참여대상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내 팀)

출품규격
· 영상형식 : 순수 창작 영상물로 특정 형식 없음
· 장르 : 단편영화
· 분량 및 해상도

영상도 (영상크기)	최소 프레임 수	파일형식
36.5초	1080p(FHD) 이상	24프레임 이상 MOV, MP4 등

문의사항 영주시 유통지원과 특산물홍보팀 (054-639-3964)

이 영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농민과 소비자 간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형/기자

김천시, 추석 연휴 출향인·귀성객 고향 방문 자제 요청

추석에도 시민의 안전과 코로나 예방이 최우선

김천시는 이·통장과 외지에 거주하는 출향인 등 1,100여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올 추석에는 가족과 친지의 건강을 위해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 고향의 부모형제와 만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크겠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8월 한때 코로나 일일확진자수가 400명대 중반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일일 확진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9. 3일부터 현재까지 100명대를 유지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연휴기간은 지역 간 이동 증가로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만큼 김천시는 감염병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년 김천역과 KTX김천역에서 실시하던 귀성객 유료 봉사도 취소하고 시내 주요 지점 80개소에 명절 연휴 고향방문과 역귀성을 자제해 달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 18과 9. 24 이틀간을 '추석맞이 일제 방역의 날'로 지정해 관내 22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먼저 9. 18에 실시되는 일제 방역의 날에는 25개 사회단체에서 40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마을회관, 경로당,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등 감염병에 취약한 다중집합장소를 방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중섭 김천시장은 "추석에도 코로나19 예방이 최우선이다 시민들께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외지의 친지들도 최대한 김천을 방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현석/기자

안동시, 유교랜드·온프레피움 관리운영권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오는 12월 중앙선복선전철 개통 등은 큰 호재

안동시는 안동문화관광단지 안에 소재한 '유교랜드'와 '온프레피움'을 영관리를 민간위탁하기로 하고 운영자 공모에 나섰다.

유교랜드와 온프레피움은 현재 경북관광공사가 안동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다. 유교랜드는 안동문화관광단지의 핵심시설로 건물 연면적 1만3349㎡, 지하2층~지상3층 규모다.

지금은 유교의 근본사상인 충효와 인, 의, 예, 지, 신을 스토리텔링화한 테마파크형 전시체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온프레피움은 부지면적 3만890㎡, 건물 연면적 1,895㎡에 온실동과 체험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

식물 테마형공원으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두 시설이 공공성에 치중한 나머지, 현재의 소비, 여행, 관광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민간위탁



을 결정하게 됐다. 위탁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에서 영위할 수 있는 해당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수립해 오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방영진 관광진흥과장은 "인근부지에 2023년까지 워터파크, 콘도, 휴양형 스파 등이 들어설 예정

이고 오는 12월 중앙선복선전철이 개통 예정이어서 이를 한데 엮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법인, 단체가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민간수탁자에게는 사업의 기회가, 우리 안동에는 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봉화군, 경제활성화 아이디어 및 봉화퍼스트 체험수기 공모

봉화군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봉화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및 봉화퍼스트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 등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봉화퍼스트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지역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봉화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발하고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와 봉화퍼스트에 참여하면서 느낀 솔직한 경험담 등을 양식에 맞춰 응모하면 된다.

경제활성화 아이디어는 전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봉화퍼스트 체험수기는 봉화군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자는 봉화군청 기획감사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10월 27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의 1차 예비심사, 봉화퍼스트 추진위원회 위원의 2차 심사를 거쳐 11월 말, 각 분야별로 최우수 1

명, 우수 2명, 특별 2명, 장려 5명이 선정되며 총 1,700만원의 지역상품권 시상금을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이원형/기자



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및 봉화퍼스트 체험수기 공모전

2020. 9. 18.(금) ~ 10. 27.(화)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나주시-한전KDN, ICT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협력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한 디지털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

전라남도 나주시와 한전KDN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증진 서비스 추진에 손을 맞잡았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8일 시청 이화실에서 'ICT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협약식'을 체결, 시민의 건강증진·관리를 위한 의료 플랫폼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ICT기술이 접목된 의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대시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의 건강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의료 플랫폼을 구축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간의 비대면 진료 피드백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 플랫폼 구축에는 생체나이 분석시스템 '모음'을 개발한 ㈜투비론의 '건강나이 분석 및 증상·질병 예측' 앱을 활용한다.

생체나이분석시스템은 건강보험공단의 검진 기록을 바탕으로 스크래핑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

용해 건강기록을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건강나이를 도출하는 기술이다.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나주시 보건소는 건강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혈액, 인바디 검사 등 생체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건강 나이 분석에 따른 신체 나이와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등을 예측해 개인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주민의 경우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기초 검사 결과를 태블릿PC에 입력하면 건강 나이 분석뿐만 아니라 의료정보 보가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에 자동으로 전송돼 공중보건과의 진료 처방과 화상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나주시와 한전KDN은 비대면 원격 진료 및 건강정보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술적 보완, 행정적 지원을 위한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 건강증진 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ICT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협력해준 한전KDN에 감사드린다"며 "개인정보인 환자 병력 등에 대한 철저한 보완에 힘써 나

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선두 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조성을 위한 아카데미 개강

남원시에서 주최하고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에서 주관하는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 1기 첫 강의를 성황리에 열렸다.

남원시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중요 정책 중 하나인 공익적 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측면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4단계로 이루어진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직접 공익적 희망 사업의 분야별 그룹을 만들고 전문 교육과정 및 컨설팅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동체창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적 활동 기반을 구축해 농촌지

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활동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7일에 진행된 첫 번째 아카데미에서는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철학과 비전, 참가 수강생들의 액션그룹으로서의 역할 및 주주 일정 등을 공유하는 내용의 개강식을 진행하고 1강 본 강사인 서용진 한국지역개발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남원형 공동체 모델'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수강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어 수강생들은 자택이나 일터에서 노트

북과 스마트폰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강사와 소통 했다.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의 이러한 행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지역대민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완수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해경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장은 "농업농촌 위기의 시대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주민과 풀뿌리공동체의 주민자치 역량강화, 돌봄과 나눔의 공동체 안전망 구축, 연대와 협동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위기가 새로운 희망의 기회가 되는 전환점이 되도록 적극 선도하고 홍보

에 다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당부했다.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조성을 위한 아카데미 1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3시간씩 총 6회로 진행되며 마지막 6차시에는 그룹별 사업방향을 구상하는 종합포럼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업 참여자는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수업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해 원하는 일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다"며 이번 온라인 강의에 크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남출/기자

순천시, 시민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복지배움터' 운영

시민복지교육으로 시민 중심 행복한 삶을 디자인하는 복지공동체 조성 기대

순천시는 지역복지에 관심이 있는 시민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복지배움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복지배움터는 주·야간으로 나눠 1기당 15명이 참여해 4기로 운영되며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협의체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사회복지의 이해, 분야별 복지정책 및 시민의식 개선교육, 지역사회보장 계획 들여다보기, 코로나블루 극복 천연제품 만들기 등으로 모든 강의 이수 시 수료증을 전달하고 희망자에 한해 순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모니터링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순천시는 이번 교육으로 지역복지

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순천 시민들이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성숙한 복지지역을 함양해 시민이 중심이 되어 행복한 삶을 디자인하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 전 과정에 걸쳐 마스크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이후에도 시민의 참여와 호응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복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복지배움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복지배움터를 참여해 소통과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구분	일시	강의내용
1기(주간)	2020. 9. 22(화)~25(금) 13:00~18:00	• 사회복지의 이해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순천시복지정책 • 폭력예방통합교육
2기(야간)	2020. 10. 12(월)~16(금) 18:00~22:00	• 노인의 인권과 학대예방 • 순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 우물층 예방 및 극복
3기(주간)	2020. 10. 20(화)~23(금) 13:00~18:00	
4기(야간)	2020. 10. 26(월)~30(금) 18:00~22:00	

교육명: 순천시 시민복지배움터 대상: 순천시(성인) 기수당 15명(신청순) 교육비: 무료
장소: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순천시 중앙7길 3-30, 2층)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건너편
문의 및 신청처: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T. 744-1050 순천시 사회복지과 T. 749-6222
본 교육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일정 및 강의내용은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뒷면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입실 시 발열 체크 및 교육시간 전체 마스크 착용. *개강 시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순천시 지침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수강신청 인원 미달 시 폐강 될 수 있음.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www.scwelfare.org

고흥군, '고흥 아이사랑 모바일 앱' 새롭게 단장

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 지원 정보를 한곳에

고흥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고흥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새롭게 단장,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고흥 아이사랑' 모바일 앱은 기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것을 아이폰 운영체제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청년부부, 임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부 및 고흥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스마트폰 클릭 한번으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주요 콘텐츠는 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타기관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텐츠별 사업내용에서는 담당자와 바로 전화 연결을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며 홍보 알림,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돼 있다.

'고흥 아이사랑'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부 등록자·청년부부·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 설치를 독려하고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에 신속하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고흥 아이사랑' 모바일 앱 서비스는 시대 변화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며 결혼부터 교육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군민이 이용해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흥 아이사랑' 앱을 이용해 줄 것을 알리고 분야별 새로운 지원 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장성군, 추석 연휴 코로나 방역 '사할 건다'

10월 4일까지 상황반, 점검반 등 180명 인력 현장 투입... 집중 관리

장성군이 9월 21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14일간 '특별방역 점검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특히 연휴 중에는 상황반과 방역대책반, 점검반을 편성해 180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기간 동안 장성군은 감염병확산 우려가 있는 PC방, 노래방,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상태를 수시 현장 확인한다. 또한 집단생활시설 14개소와 병원 40개소에 대해 6급 이상 공무원으로 1:1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고 방역상황 점검과 면회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종교시설 및 관광지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이행상황도 필수 점검대상이다. 장성군은 다수의 대중이 밀집되거나 가족단위 이용객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대표 관광지인 장성호수변길은 9월 27일까지 폐쇄하고 이

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성묘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내 봉안시설은 추모객종량 예약제, 체류시간 제한, 온라인 성묘서비스 홍보 등을 시행한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은 연휴 전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다중이용시설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 또한, 이용객이 붐비는 공연버스터미널과 장성역 등 교통시설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운영하고 방역관리반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아울러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24시간 가동하며 해외입국자 임시격리시설, 자가격리자 1:1 관리 등 방역상황을 철저히 유지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추석 연휴는 최대한 집에서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별초대행 서비스, 온라인 추모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오홍근/기자



강진읍, 6.25 화랑무공훈장 전수



故 이준성 병장 6.25 화랑무공훈장 67년만에 가족에게 전수

강진읍은 지난 21일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을 받기로 했으나 전수되지 못한 故 이준성 병장의 훈장과 증서를 동생 이봉우 씨 가정을 방문해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67년 만에 전수했다.

훈장을 대신 받은 동생 이봉우 씨는 "그때 나이가 어려 형의 얼굴도 모르지만 늦게나마 형님의 명예를 되찾은 것 같아 기쁘다"며 "월남전 참전으로 몸이 불편한데 읍장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해 주니 고맙다"고 말했다.

최종열 읍장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드리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육군은 6.25전쟁 당시 급박한 전황으로 공적이 누락됐거나 훈장을 수령하지 못한 수훈자들을 발굴해 수여하는 '6.25전쟁 참전자에 대한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각 행정기관과 보훈단체의 협조 속에 지속 추진하고 있다.

김장길/기자

전국 최초 온택트 보성세계차엑스포 성황리에 마쳐

4일간 보성차 판매액 1억 2천만원. 지역농가소득 한몫

녹차수도 보성군이 국내 최초로 개최한 온택트 보성세계차엑스포가 지난 20일 4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보성세계차엑스포는 6만 4천여명이 홈페이지를 찾아 온라인으로나마 보성 차향을 만끽하며 힐링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간 내 보성차 50% 특별할인 흡소핑 행사를 진행해 1억 2천만원 상당의 보성차가 판매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앞으로 온택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 전남 도청 인구청년정책관 등 지자체와 행사 기획 관련 단체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등 처음으로 열리는 온택트 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세계 최고의 명차를 선정하는 세계차품평대회와 대한민국 티블렌딩대회에는 세계차품평대회에 101건, 대한민국 티블렌딩대회에 34건이 출품되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차엑스포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제8회 보성세계차품평대회 수제 덫음차부분 금상에는 몽중산다원, 기계덫음부분 금상에는 보성원당제다원, 증제차부분 금상에는 청우다원, 청차부분 금상에는 복건건강상미인차업유한공사, 황차부분 금상에는 바이무딩, 홍차부분 금상에는 천지운, 흑차부분 금상에는 라이홍고차방, 블렌딩차 금상에는 Gifel Tea, 말차부분 금상에는 소아다원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6회 대한민국 티블렌딩대회에는 금상에 다채, 은상에 김형복, 동상에 김종분님



이 수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하지 못한 출향민과 차례를 지내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보성향교 유도회 주관으로 명절 합동차례를 지내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 홈페이지 방송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송출됐다. 보성 UCC 공모전은 소림학교가 대상을 차지했고 특히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는 16일 저녁 시간당 3천 9백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인기 가수 추가열씨와 미스터트롯 출신의 유지광씨가 진행한 차발 힐링 토크콘서트는 100만평 보성차밭의 풍광과 느낌이 영상으로 전달해 힐링되고 힘이 됐다. 보성차 랜선골든벨은 141명이 참가해 보성차에 대한 지식을 겨뤘으며 무엇보다 보성을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어 내년에는 참여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차례상 차올리기 전국민 대상 이벤트에는 1,027명이 참여했으며 신청자들에게는 차례상에 차를 올릴 수 있도록 보성녹차와 보성쌀을 차례선물로 보내게 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국내 최초로 열리는 온택트 보성세계차엑스포는 새로운 도전이자 코로나 정국에서 축제나 행사의 전반적인 틀을 바꿔놓은 획기적인 시도였다"며 "이젠 국경과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축제를 할 수 있다며 축제 이외에도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온택트를 활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구직자 대상 구직정보 우편물 발송, 아파트 등 주거지역 비대면 홍보

고창군로컬잡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비대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로컬잡센터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읍면을 순회하면서 구인·구직자 발굴 및 알선, 동행면접 등 고용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다만, 로컬잡센터 방문 상담자에 한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가림막이 설치된 상담창구에서 구인·구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추석을 앞두고 군내 식품가공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구인수요가 증가하면서 구직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비대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

로컬잡센터는 먼저 군내 단기일자 리 및 식품가공업체 등을 희망한 구직희망자 300여명을 선별해 구직정보 및 센터 홍보물 등을 우편으로 송부했다.

또 관내 아파트단지 내 게시판을 비롯해 읍면 내 마을회관을 방문해 일자리정보지 및 구인정보 자료를 배부, 게시하고 문자서비스를 통해 구직자별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해 유선 상담을 유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고용서비스에 구직자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취업 연계지원으로 고창군 로컬잡센터는 8월 말 현재 구인인원 319명, 구직신청 701명, 알선 496명, 취업자 185명 등 고용성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구직자들의 안전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비대면 취업박람회 및 고용서비스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고창군로컬잡센터 김희진 센터장

김승일/기자

장수군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4년 연속 선정

장수군이 문화재청 주관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21일 장수군에 따르면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재창조해 프로그램형 문화재 관광자원 및 역사교육장 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장수군은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지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 4년 연속 생생문화재 사업에 선정됐다.

내년 장수군 생생문화재사업은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에서 미래 찾기'라는 주제로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및 백두대간 속 청정자연경관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이 자연 속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들을 계획했다.



장영수 군수는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장수군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향유를 통해 1500년 전 장수군에 자리한 가야

문화를 비롯한 장수만의 역사문화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승오/기자

전주시, 탄소복합재 전문인력 양성 '집중'

탄소산업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과 기초 직무소양 등 무료로 교육해 취업까지 연계

전주시가 미래 먹거리를 대표하는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에 나선다.

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0 탄소복합재 전문인력양성과정 채용연계형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10명을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

이 교육은 탄소산업에 요구되는 실무능력과 기초 직무소양 등을 길러 취업까지 연계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25일에 걸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자 및 취업 희망자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자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이 아닌 자다.

세부 교육과정은 탄소소재 이론 및 실습 기초직무소양 산업현장 생산혁신 산업안전 등에 대한 전문이론교육과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희망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홈페이지 또는 탄소기술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와 기술원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교육으로 총 75명의 수료생을 배출, 이 중 90.7%인 68명을 취업까지 연계시킨 바 있다.

방원혁 원장은 "탄소섬유를 비롯한 부품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며 "탄소부품소재산업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전문성 있는 언론인 연수

인론 조사, 분석,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뉴스서비스

뉴스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과학적인 정부광고 집행

전 국민 대상의 미디어 교육

읽기문화강연회

소외계층 매체 취재, 제작 지원

소외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

국민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언론과 국민을 잇는 이음줄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언론, 소통하는 사회, 뉴스생태계 혁신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9월 23일 강원키스트리엔날레2020 온라인 현장브리핑 개최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홍천군 와동분교서 온라인 현장 브리핑 개최

강원문화재단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실은 오는 9월 23일 오전 10시30분 홍천군 와동분교에서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강원키스트리엔날레 2020 온라인 현장 브리핑'을 진행한다. '강원키스트리엔날레 2020'은 국내 최초 3년 주기 순회형 미술행사인 '강원국제예술제'의 2차년도 행사다.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18일간 강원도 홍천군 구탄약정비공장과 와동분교, 홍천미술관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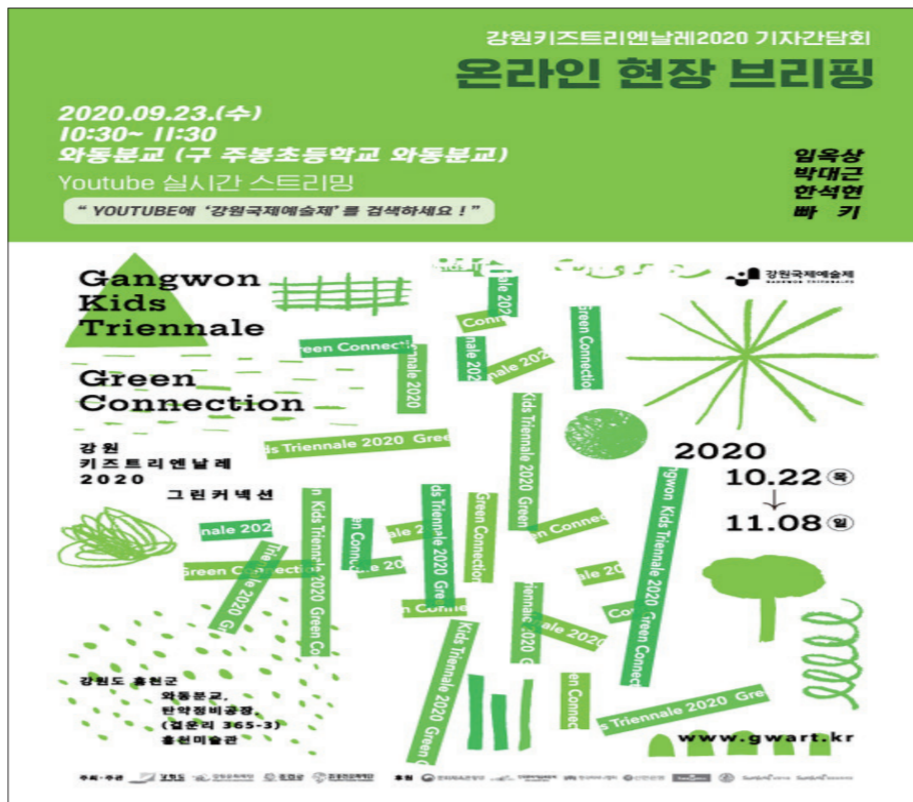
이번 온라인 현장브리핑에서는 국내 최초 어린이 시각예술 축제인 강원키스트리엔날레의 주제와 메인 포스터, 참여작가의 작품과 전시 구성 등이 발표된다. 탄약정비공장과 와동분교 등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 장소가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환되는 의의와 과정도 설명

된다.

한편 강원키스트리엔날레2020 예술감독과 신지희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실장, 임옥상 작가, 한석현 작가, 박대근 작가, 빠키 작가 등이 참석하는 현장 브리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 방송된다.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질의 응답 시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강원국제예술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필국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식 온라인 현장브리핑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강원키스트리엔날레 2020'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바쁘시더라도 꼭 접속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관외운영차량 1대 증차

모두 10대 보유...연말까지 약 1만8000여명 이상 이용 기대

보령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관외 운영차량을 1대 증차했다.

시는 21일 시청 광장에서 김동일 시장과 김혁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지부 보령시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9대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달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차량이고 이번에 증설된 차량은 관외 전용차량으로 장애인의 타 지역 원거리 이용이 보다 수월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07년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꾸준히 증차해 이번 관외 전용차량까지 모두 10대를 보유하게 됐다.

현재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10명과 사무직 1명 등 모두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월 평균 1590여명 등 현재까지 누적인원 1만 277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증차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약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관외운영차량 증차로 관외 지역으로 병원 진료 등 많은 중증 장애인들의 진료 여건 개선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증가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을 추가로 증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지구를 위한 당진시민 공동행동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당진시, 9월 22일 세계 차없는 날 맞아 한 달간 전국 11개 도시 동참

당진시가 기후위기 시민행동 '2020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시작한다. 9월 22일부터 당진시와 전국의 11개 도시가 함께하는 '2020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는 기후위기시대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자전거 사용을 늘리자는 취지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당진시와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당진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에코바이크'를 설치하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는 '에코바이크' 앱을 통해 자전거 주행거리, 총 에너지 감소량,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량 등을 알 수 있고 전국 또는 당진

에서의 본인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챌린지 기간 동안 최다주행거리, 최다출퇴근 스탬프 획득, 특별 경연순위 등 주행 실적에 따라 챌린지 종료 후 메달과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는 별도 참가 신청 없이 스마트폰에 '에코바이크'를 설치하고 앱을 실행하기만 하면 참여 가능하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앱에 기록되는 주행코스과 이동속도 등 정보를 통해 정비나 필요한 자전거 도구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본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탄소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의미있는 활동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행담도휴게소서 수산물 판촉 행사 진행



도, 18~20일 추석맞이 수산물 행복장터...현장 판매 2000만원

충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수산물 업계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행담도휴게소 판촉 행사를 진행, 총 2000만원 현장 판매의 실적을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에서 '추석맞이 수산물 행복장터' 홍보·판매전을 열고 휴게소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의 우수 수산물을 소개했다.

행담도휴게소는 상·하행선이 함께 위치해 있고 바다 조망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서해안고속도로 대표 휴게소이다.

이번 행사에는 키조개 바다장어 갈매 흰다리새우 등 4개 업체가 참여해 고품질 수산물을 시장가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판촉전 결과, 4개 업체의 현장 판매 규모는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번 판촉전 진행 시 아크릴 차단막 설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대책을 준수했다. 임민호 도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판촉 행사는 도내 생산·제조한 우수 수산물을 고속도로 이용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도내 업체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공주 계룡산도예촌 '2020 공예주간' 27일까지 열려

'계룡산 분청에 맛과 멋을 담다' 주제로 10일간 진행

공주시는 지난 18일 계룡산도예촌에서 세계 철화분청사기의 진수를 느껴볼 수 있는 '2020 공예주간'이 개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정섭 시장과 작가, 도예인, 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공예주간'은 '계룡산 분청에 맛과 멋을 담다'를 주제로 오는 27일

까지 총 10일간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판매부스 장터는 취소했으며 소규모 전시회와 도예촌내 공방갤러리 그리고 도자기 물레체험과 철화분청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황의정 문화체육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반적인 지역 문화예술 산업이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독자적 문화자산인 철화분청사기의 발전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코로나19 위기에 도 추석대목 열기확산

화천군, 25일까지 전 부서 전통시장장 보시기 주간 운영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접경지 화천의 지역경제에 대목맞이 준비에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다.

화천군은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 부서가 참여하는 화천 전통시장 이용주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21일 근무감사실과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교육복지과 직원들이 화천시장을 찾아 물품을 구매하고 시장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군은 오는 23일 화천시장에서 장보기 행사와 함께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 안내 캠페인을 펼치고 화천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홍보한다. 화천시장 역시 추석대목을 맞아 명절 분위기를 띄우기에 나섰다.

시장조합은 지난 14일부터 추석맞

이 경품행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행사는 소비자가 조합원 점포에서 1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식사를 할 경우 경품권과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경품추첨은 다음달 6일 진행되며 1등에게는 50만원, 2등에게는 30만원, 3등에게는 10만원 등 총 61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이 주어진다. 특히 시장조합은 소비자들이 장을 본 후, 무거운 장바구니를 집까지 무료 배송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코로나19가 아직 수그러지지 않았지만,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추석은 농칠 수 없는 대목"이라며 "시장을 방문하는 모든 군민과 영업 중인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간 거리두기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원/기자



용산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 9억원 확보

용문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육성

서울 용산구 용문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특성화시장 육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상품 전시회, 특성화 시장 육성, 노후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해당 공모에 용문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용문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용문시장 주차환경 개선 신청서 등 4개 사업을 응모,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확보한 국시비 예산은 약 9억원에 달한다.

특히 구는 용문시장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육성·개발한다. 사업 테마는 "젊음과 함께, 생활을 담은, 용산의 미래시장"이다.

이를 위해 구는 2021~2022년 2년에 걸쳐 특성화시장 인프라 조성 및 지속가능한 조직 시스템 구축에 매

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시장 만들기 생활시장 만들기 미래시장 만들기 등이 있다. 구는 우선 시장 내 공유공간을 확보, 청년층과 지역민, 외국인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시장 마당 플랫폼'을 꾸민다.

플랫폼 위치는 원효로3가 1-1번지 일대로 면적은 약 1350m²다.

상인회와 청년상인 문화기획단이 여기서 베틀시장 등 문화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점포별 상품·환경 컨설팅도 진행한다.

상품 포장과 새롭게 하거나 가게 외관 또는 매대를 깔끔하게 정비하는 방식이다. 고객안전선도 만든다.

점포 위생 상태를 개선, 감염병 예방에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용문시장 중앙광장에는 '스마트 공유센터'를 설치한다.

시장·점포 홍보를 위한 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과 와이파이, 유동인구 확인용 폐쇄회로TV 등을 설치,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구축한다. 유동인구 빅데이터는 시장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구는 용문시장 관광투어 상품과 특산물 판매플랫폼 구축, 온라인 마켓·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단 운영, 상인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시장 방문자를 확충해 나간다.

성장한 용산구청장은 "구 예산을 포함, 용문시장 활성화에 내후년까지 약 10억원을 투입한다"며 "용문시장을 글로벌 도시 용산에 걸맞은 지역 선도시장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부산시, 온라인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박차

'2020 부산광역시와 함께하는 사이버한국유학박람회' 개최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국립국제교육원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Study in Korea 웹사이트에서 '2020 부산광역시와 함께하는 사이버한국유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기획된 이번 박람회에는 경남정보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영리대, 부산대, 부산여대, 부산외대, 영산대, 한국해양대 등 부산지역 내 11개 대학이 '온라인 홍보 부스'에 참여하고 이 중 7개 대학은 사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설명회'를 기간 내에 개최해 부산 유학을 희망하는 예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날 예정이다. 올해 박람회는 해외 현지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부산 지역 내의 대학만 참여해 실질적인 지역대학의 외국인 부산 유학생 유치 성과를 기대하

고 있다. 또한, 부산 내 대학들의 참여와 함께, 재단의 부산시유학생지원센터는 2019년에 개소해 부산 소재 22개 대학과 함께 유학생 유치, 학업 및 생활, 취업 지원 등 외국인 유학생의 부산 생활과 유학생의 유치, 정착부터 지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펼치고 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정종필 사무총장은 "부산 지역 대학의 유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현지에서 부산지역 대학의 예비 유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다"며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번 박람회가 언택트 시대에 더 좋은 유학생 유치 방안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변성원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진행되는 이번 사이버 박람회를 통해서 부산 지역 내 대학을 홍보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광남/대기자



도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시작. 사용액·신규등록 모두 2배 늘어

6~8월까지 평상시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액 일 평균 63억원 대비 227% 증가

경기도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소비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 경기지역화폐 신규 등록과 소비지원금 지급 기준일 이후 사용 금액이 각각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골목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기준일이 시작된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금액은 하루 평균 143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평상시라고 할 수 있는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정책발행분을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일반발행 사용금액은 일평균 63억원으로 227%가 증가한 셈이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발행은 이용자가 자신의 돈으로 지역화폐를 충전

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지역화폐 신규등록도 크게 늘었는데 이대명 경기도지사가 소비지원금 지원 계획을 밝힌 지난 9월 9일 이후부터 20일까지 12일 동안 일 평균 1만1,741건이 경기도 지역화폐 신청을 했다.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일 평균 신청건수가 일 평균 5,949건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경기도 지역화폐 등록과 사용추이를 살펴보면 신규 등록의 경우 9일 소비지원금 발표와 함께 당일 1만 4,526건으로 증가했으며 지급기준일인 18일 1만9,33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용액은 18일 193억원, 19일 148억, 20일 88억원으로 모두 6~8월 일 평균 63억원을 넘었다.

경기도는 이같은 증가 추이를 볼 때 경기도 소비지원금이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골목시장에 활기를 다시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카드형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은 모두 50만3,980개소로 이 가운데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이 37만245개소로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올 상반기 기준 경기도 지역화폐 결제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결제액 1조3,107억원 가운데 3억원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액은 4,781억원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BC카드 결제액과 대비되는 결과를 보이는데 올 상반기 경기도내 BC카드 결제액은 총 15조8,243억원으로 이 가운데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점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조1,300억원으로 64%를 차지한다.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결제액은 2조7,610억원으로 17.4%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 자료는 지역화폐가 소비패턴을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지역

경제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으로 전환시켜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활기를 다시 찾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지원금은 20만원 충전으로 기준 10% 인센티브와 함께 15%에 해당하는 추가 소비지원금 등 역대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이다.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해야 하는데 1천억원 규모의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소지한 모든 경기지역화폐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한다.

박상찬기자

완도군,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 사업 선정

완도군은 2021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총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금일 충동마을 녹색네트워크 풍치숲 조성사업으로 앞으로 마을 주민·단체들과 함께 숲을 조성하게 된다. 사업 선정을 위해 신청 단계부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숲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군에서 자생하는 방향식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곳, 향후 연도교 건설을 통해 관광 자원화가 가능한 곳, 주변 산림과의 조화를 극대화해 지역 특유의 경관 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선택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 참여 숲 조성사업'은 마을의 유휴 토지, 자투리땅 등에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이다. 숲 조성을 통해 경관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 만남, 모임 등 친목과 소통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매해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활 속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1곳의 숲이 조성됐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서도 마을 주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숲 조성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로 완도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발행시기 : '20.9.1.부터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일루전 환상 축제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대단원

만날 수 없지만 만난다. 일루전 언택트 축제, 대단원의 막 내려

만날 수 없지만 만난다. 볼 수 없지만 본다.

상상과 현실, 가상과 실제, 기술과 예술,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다원예술의 세계로 떠나는 환상 여행. 2020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이 일루전이라는 문화컨텐츠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이천시가 주최하고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세계적인 일루셔니스트이자 공연 예술가인 이은결 씨가 총감독을 맡아 기획단계에서부터 화제를 모은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최 취소 위기를 극복하고 올해는 온라인 언택트 축제로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네이버 TV와 IIIIF 공식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생중계 됐다.

온라인 LIVE 공연은 유튜브와 네이버TV의 조회수 50,000회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온라인 페스티벌로 k-festival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실시간 양방향 소통으로 즐기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트렌

드와 삶의 방식에 대한 주제 토크를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섭 소장,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 동국대학교 유지나 교수와의 토크콘서트로 이루어지고 주제와 잘 맞는 공연팀의 서커스, 마임, 매직 등 다양한 일루전 퍼포먼스가 가미되어 정보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인터페이스로 형식으로 진행됐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9월 20일은 저녁 7시 30분부터 설봉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자들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무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됐다.

총감독을 맡은 이은결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문을 IF 피날레 콘서트는 매직과 결합한 비보잉 퍼포먼스, 음악과 함께하는 판도마임, 혁신적인 현대무용 콘텐츠로 리덴스,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의 이동형 오브제공연, 그리고 VR, 미디어아트까지 아날로그의 감성과 디지털의 경계를 허문 다양한 장르의 퍼포먼스로 결합된 스페셜 무대가 2시간 동안 숨가쁘게 진행됐다.

이어서 키 4.2m의 온 몸에 빛을 밝히는 라이트 대형 퍼펫 쿠오레와 군집드론 기술로 2백대의 드론을 동시에 띄운 첨단 드론라이트 쇼가 이천의 하늘을 일루전 이미지들로 수놓으며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이어 라이브음악과 함께 VR퍼포



먼스로 등장한 대형고래 퍼펫이 무대를 채우며 대미를 장식했다. 폐막식 이후에는 유튜브 공식 채널로 편집된 공연팀들의 영상이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어 라이브 방송과는 또다른 매력의 클립이 있는 공연을 다시보기 할 수 있어 라이브 스트리밍 중계의 감동을 고스란히 경험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초 아리랑TV에서 이천국제일루전페

스티벌의 공연 실황을 특집프로그램으로 편성해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 108개국으로 송출해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을 세계인이 환호하는 k-festival로 업그레이드 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천시를 세계 속의 문화산업 메카로 도약시켰다는 목표에 한걸음 다가선 것 같아 만족스럽다. 무엇보다 이천시민과 국민여러분께서 환상적인 일루전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희망을 갖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제66회 백제문화제, 코로나19에도 정통성 이어간다

코로나19 극복과 정통성 계승 위한 제례와 불전으로 축소 개최

오는 9월 26일 개막하는 제66회 백제문화제는 소제 성격의 제·불전 중심으로 치러진다.

올해로 66회째를 맞이하는 백제문화제는 지난 1955년 6·25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절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부여에서 처음 개최되었는데, 백제 말기의 삼충신을 추모하는 삼충제와 백제 멸망과 함께한 수많은 백제여인들을 위무하는 수

륙제 등 제향 중심으로 시작되어 그동안 65회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지역 주민들로 해금 백제 후에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부여군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금년 백제문화제 개최 여·부를 놓고 충청남도과 부여군·공주시와 백제문화재단은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백제문화제의 유구한 정통성을 잇고 코로나 종식을 염원하는 제례와 불전 중심으로 축소 개최하자는데 뜻이

모아져 올해는 삼충제와 수륙제 등 8개 제례·불전과 공주시 웅진백제 5대왕추모제를 중심으로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부여군에서 개최되는 제례·불전은 9월 26일 충화면 천등산 일원에서 고천제와 혼불제화, 팔충제 및 부여 금성산 성화대에서 치르는 삼산제 9월 27일 백제대왕제, 오전결사대 총총제 9월 28일 궁녀제 및 삼충제 10월 3일 유왕산 추모제 및 수륙제가 봉행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도 올해는 백제문화제의 명맥을 잇기 위한 제례와 불전으로 축소 개최하되 행사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행사참여 인원 최소화, 외부관광객 참여 제한, 열 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사장 내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 진행된다"며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역관련 부서와 긴밀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제례와 불전 행사 기간 중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최고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강남구, 유튜브 온라인 강좌로 '코로나블루' 극복 돕는다

'곽정은의 따뜻한 시간' 시작으로 10,11월 중장년층 심리요법도...구형 홈페이지·유튜브 방송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자살예방의 날 기념 주간에 맞아 18일 작가 겸 방송인 곽정은의 강좌를 시작으로 '코로나블루' 극복을 돕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연달아 진행한다. 구는 그동안 삼성역 등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자살예방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왔으나, 올해는 유튜브를 활용해 '우울증'이라는 소재를 무겁지 않고 흥미롭게 풀어낸 비대면 강좌로 기획했다.

특히 18일 방송되는 '2030세대의 언니, 작가 곽정은의 따뜻한 시간'

프로그램은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여성 등을 위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은 구형 홈페이지 또는 강남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아울러 강남구는 10, 11월 한 차례씩 정신건강전문요의 초청강연 '화내리고 기쁨 올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층 대상 심리요법을 온라인 방송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양오승 강남구 보건소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번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고 위로받기를 바란다"며 "온택트시대의 리더로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방역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2020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Untact Opening '~있다' 개최

On-line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끼·재능 소개와 소통의 장 기대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2020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Untact Opening '~있다'가 오는 26일 오후 3시 뿌리아트홀에서 열린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감수성 함양 및 재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어울림마당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증가세 및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진행한다.

안성시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안성지부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보컬, 랩, 댄스, 퍼포먼스 등의 공연 및 체험활동, 복면가왕 수상자공연, 하은하린양의 초청공연 등 청소년들이 주제적으로 기획하고 진행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펼쳐진다.

이날 Untact Opening '~있다'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0여개 동아리들의 공연 및 체험 영상을 라이브로 송출하게 되며 청소년들의 동아

리 활동제하에 따른 코로나 블루 해소 위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소통으로 호응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 Pre-Opening '복면가왕'에서 독보적인 실력으로 대상을 차지한 오서아양의 솔로댄스와 최우수상을 수상한 초등학생 14명으로 구성된 케이틴의 화려한 군무, 우수상의 영광을 안은 이현아 등 4명의 중학교 댄서의 앵콜 공연 및 장학금 전달이 이어지게 된다.

무 관중 On-line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되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송을 탈피하기 위해 랜선 관객과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으로 방송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할 예정인 온라인 라이브방송은 26일 오후 3시부터 '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안성지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영식 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안성지부장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있다'에서 끼와 재능을 보여줄 청소년들에게 많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달라"며 "향후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안전하고 다양한 비대면 청소년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DMZ 문화예술삼매경,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Re:MAKER

DMZ문화예술삼매경 Re:MAKER 고성 프로젝트 작가모집

모집 분야 1. 비치하우스 외벽 미디어아트 콘텐츠 2. 비치하우스 내 ART ROOM 조성

접수 일정 2020년 9월 16일(수)~10월 6일(화) 24시까지 / 21일간

* 사업설명회 9월 25일(금) 13시 춘천베어스호텔

문의 강원문화재단 교류협력팀 큐레이터 장민현 033-240-1394

강원문화재단, 'DMZ 문화예술삼매경' 'Re : MAKER' 고성 프로젝트 참여작가 모집설명회 개최

강원문화재단은 'DMZ 문화예술삼매경' 'Re : MAKER' 고성 프로젝트 참여작가 모집설명회를 오는 9월 25일 오후 1시 춘천베어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무장지대 인근을 예술거점화하는 사업인 DMZ 문화예술삼매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소개를 비롯해 'DMZ 문화예술삼매경' 'Re : MAKER' 고성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작가들을 위한 모집분야, 참여절차와 방식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작가모집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참여 인원을 최대 40명으로 제한한다.

관심 있는 작가는 강원문화재단으로 문의하거나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한편 고성 프로젝트의 경우 건물 외부에 투사될 미디어아트 콘텐츠에 참여할 작가 2명과 건물 내부 8개 객실을 독창적으로 작품화하는 아트를 조성에 참여할 작가 8명을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모집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강원문화재단 교류협력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장민현 DMZ 문화예술삼매경 큐레이터는 "작가모집 설명회를 통해 DMZ 문화예술삼매경 사업을 널리 알리고 작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2020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Untact Opening

"~있다"

● 일시. 2020. 9. 26. pm. 3-5

● 장소. 뿌리아트홀(석정동)

● 복면가왕 수상자 및 동아리공연

● 초청가수, 하은하린

● 온라인시청자에게는 실시간 상품추첨!!

YouTube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LIVE

주최 여성가족부 안성시 주관 (사)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안성지부 기획 미래위원회

대림산업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 18일 주택전시관개관

지하 3층~지상 18층, 8개 동, 전용 면적 65~84㎡, 총 606

대림산업은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195번지에 짓는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남양뉴타운에 들어서는 첫 1군 브랜드 아파트인데다 LH가 주관하는 공공주택 공모

사업에 선정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은 지하 3층~지상 18층, 8개 동, 전용면적 65~84㎡, 총 606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로는 △65㎡ 154가구 △75㎡ 190가구 △84㎡ 262가구로 전가구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 각종 개발호재로 화성시 서부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책임질 '남양뉴타운' 탁월한 미래 가치로 주목받는 '남양뉴타운'은 면적 약 257만㎡, 수용인구 3만9000여 명 규모의 도시개발사업구역이다. 남양뉴타운의 미래가치는 다양한 교통호재에 기인한다. 서해안 복선전철 '화성시정역'이 2022년 신설 예정으로, 2024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인 신안산선과 연계될 계획이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흥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44.7km를 잇는 지하철 노선이다. 서해선과 월곶-관교선 연계가 예정돼 있어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 교통문제를 해소할 대형 호재로

각광받고 있다.

광역 도로망 개발도 활발하다. 제2외곽고속도로 개통이 2021년으로 예정돼 있고,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을 연결하는 발안~남양 고속도로 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 4000억원이 투입되는 발안~남양 고속도로는 총 연장 14.5km에 달하며, 관내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자족적 도시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도 주목된다. 2030년 개발 완료될 목표로 여의도의 19.2배 면적에 사업비 약 8조8000억원을 투입, 리조트·골프장·R&D·산업·주거시설 조성이 계획된 '송산그린시티'가 가깝다. 업계에서는 송산그린시티에 대해 70조원 규모의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와 11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8년 간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신세계 테마파크 개발이 본 궤도에 올라 주목받고 있다.

■ 1군 빅브랜드 'e편한세상' 역량이 총망라된 최고 수준의 특화 설계와 커뮤니티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은 브랜드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주거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로 꾸며진다. 혁신평면 'C2 하우스'를 적용해 수요자 취향에 따라 구조 변경이 자유롭고 수납 효율이 극대화된 공간으로 설계됐다. C2 하우스는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환경에 맞춰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

도록 대림산업이 개발한 주거공간 플랫폼이다.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에는 첨단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적용된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실내외 모두 입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구성했다. 실내에는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실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환기와 공기청정 시스템이 작동되어 24시간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한다. 그리고 단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신호등과 미세먼지 자동 분사 시설이 설치되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커뮤니티도 기존 남양뉴타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최신 시설이 다양하게 조성된다. 주말이나 여가 생활에 특화된 지역 최초 남녀 사우나 시설과 게스트하우스, 힐링텃밭, 그린카페가 들어설 계획이다. 또,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으로 구성된 스포츠 센터와 독서실, 스터디룸, 작은도서관이 갖춰진 에듀센터 등이 도입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학원차량 드롭오프존과 실내놀이터가 있는 맘스스테이션도 설치된다.

■ 산단 가까운 직주근접 입지에 들어서는 친환경 '공품아'... 지역 대장아파트 '뜬다'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은 단지 인

근의 주요 산업단지 및 연구단지 출퇴근이 용이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반월공단이 자리하고 있는 안산이나 시화공단이 위치한 시흥시, 삼성반도체 공장이 가동 중인 평택 등 이웃 도시 진출입이 용이해 실거주 수요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양뉴타운은 송산마도 IC를 통해 평택-시흥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인접한 77번 국도를 통해 안산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313번 지방도(화성로)를 통해 반경 8km 내에 있는 마도 일반산업단지 및 경기 화성바이오밸리 등 주요 산업단지까지 이동이 수월하다. '남양로'를 이용해 남양뉴타운 전역을 쉽게 오갈 수 있다.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5.4km 거리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를 비롯해 남양뉴타운 인근에 포진한 노하 산업단지·장안 산업단지·쌍송·온장·동문 산업단지 등 다수 산업단지 출퇴근 여건이 우수하다.

뉴타운에 들어서는 단지인 만큼 전체의 자연환경과 근린공원을 누릴 수 있는 '공품아' 단지로 조성된다. 무봉산이 인접해 있어 사시사철 쾌적한 주거와 탁 트인 녹색조망이 가능하며 단지 내 4100㎡ 규모로 꾸며질 중앙광장 및 수경시설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단지 앞에 풀향기공원과 남양 푸른 건강플 체육공원 등의 공세권 환경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다.

■ 경쟁력 있는 분양가... 인근 도시 전세가격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은 LH가 주관하는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으로 민간 단지에 비해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메리트다. 전체 공급물량의 80% 가량을 특별공급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청약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전세거주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이에 따라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은 화성 지역 내 수요자뿐만 아니라 사업지에서 멀지 않은 수원시와 안산시, 시흥시 전세 거주자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특히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돼 있어 향후 화성시는 물론 수도권

내 부권역 아파트 시장의 판세 변화를 주도할 리딩 단지 중 한 곳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은 가점 경쟁 없이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만 충족하면 청약에 나설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반분양의 경우 소득기준이나 자산요건에 따른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청약 1순위의 경우 청약통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수도권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만 돼 있다면

2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의 청약일정은 오는 9월 28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월 29일(화) 1순위 당해지역(경기도 화성시), 10월 5일(월) 1순위 기타지역(수도권), 10월 6일(화)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3일(화)이며 정당 계약은 11월 2일(월)부터 11월 5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LH공모에 선정된 민간참여 공공분양 사업으로서 경쟁력 있는 분양가와 쾌적한 정주여건이 특장점"이라며 "국내 Top3 1군 브랜드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과 미래가치에 주목한 수요자들의 문의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전시관은 코로나 펜데믹 여파로 e편한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운영된다. 청약에 앞둔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지조건과 분양가, 청약자격과 전용 84㎡ 타입 유닛 등 구체적인 상품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한다. 입주는 2022년 11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031-306-0606>

김남주기자



(주)대원, '센트럴 대원칸타빌' 23일 모델하우스 오픈

아파트 전용 84㎡ 410가구, 오피스텔 전용 58·64㎡ 44실...선호도 높은 중소형 구성

(주)대원은 23일(수)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에 들어서는 센트럴 대원칸타빌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단지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차원에서 고객 안전을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함께 운영된다. 센트럴 대원칸타빌 홈페이지를 통해 유니트별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 입지, 단지 배치, 커뮤니티, 특화설계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센트럴 대원칸타빌은 중구 동인동 77번지 외 64필지에 지하 4층~지상 43층, 총 4개동(아파트 3개동, 오피스텔 1개동)복합단지 조성된다. 전용면적 84㎡, 410가구 아파트와 전용면적 58·64㎡ 44실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타입 별 가구수는 아파트가 ▲84㎡ A 246가구 ▲84㎡ B 164가구이며, ▲오피스텔은 ▲58㎡ OA 22실 ▲64㎡ OB 22실로 선보인다.

향후 일정으로는 10월 6일(화) 특

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수) 1순위 8일(목) 2순위 청약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5일(목) 진행하며,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센트럴 대원칸타빌 모델하우스에서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 V자 배치로 조망권 우수... 전타입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센트럴 대원칸타빌은 (주)대원이 대구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지로 '칸타빌'만의 특별한 건설 노하우를 적용한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먼저 단지는 V자 배치 및 43층 초고층으로 설계해 대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파노라마뷰를 확보했다. 또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타입 판상형 구조, 고품격 외관 디자인으로 설계해 중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거단지가 될 전망이다.

아파트의 경우 가장 많은 246가구로 구성되는 84㎡ A타입은 4Bay 판상형 구조로 우수한 개방감 및 통풍을 자랑한다. 또한 광폭 와이드 설계로 거실, 드레스룸 등을 더 넓고 쾌적하게 시공하며 현관 워크인

수납장 등 풍부한 수납공간도 갖췄다. 84㎡ B타입 역시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며 84㎡ A타입과 다른 넓은 주방으로 설계해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도 대원칸타빌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를 선보인다. 58㎡ OA타입의 경우 광폭 와이드설계를 적용해 넓은 거실 및 주방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내실 다용도실도 있어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64㎡ OB타입도 아파트와 같이 현관 워크인수납장을 제공할 예정이며 각방마다 드레스룸을 갖춰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 대구 중구 내 최중심 입지... 교통·생활인프라 뛰어남

센트럴 대원칸타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아 대구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구 최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생활인프라가 우수하다.

우선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단지 주변에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구역, 칠성시장역이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다. 또한 KTX 동대구역 및 북

합환승센터도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태평로, 신천대로, 달구벌대로도 가까이 있어 대구 시내로 이동이 용이하다.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갖췄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단지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대구 최대변화가로 유명한 동성로와도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965개 병상을 갖추고 있는 경북대병원도 주변에 위치하고 동덕초, 동인초, 경명여중, 경명여고 등도 인접해 있다.

개발호재로 인해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단지 주변에 현대, GS 등 10대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단지들을 포함해 중구 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2025년까지 진행되는 대구시의 신천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신천 생태복원이 이뤄지면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 관공서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중앙도서관,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문화시설도 가깝다.

(주)대원 분양 관계자는 "센트럴 대원칸타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떠오르는 중구에서도 핵심 입지에 위치한다. 전매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모델하우스 오픈 전임에도 벌써부터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모델

하우스 방문자를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과 동선관리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고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센트럴 대원칸타빌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피한 막바지 분양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말 시행될 예정으로 지방 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신규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반면 센트럴 대원칸타빌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전 승인받아 분양권 전

매가 가능하다.

한편, 센트럴 대원칸타빌을 시공하는 (주)대원은 올해 전국건설사 시공능력평가 69위에 올랐다. 청주 지역에서 '사창동 대원칸타빌', '동남지구 대원칸타빌 더 테라스' 등을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받은 브랜드이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국내에 3만 2,000

여 가구를 공급했으며 오산세교 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입을 성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게다가 2001년 베트남에 진출해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다. (주)대원은 주택 외 산업생산시설, 택지조성, 도로공사, 산업단지조성 등 각종 인프라 및 일반건축 부문에서도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센트럴 대원칸타빌 모델하우스는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389-4번지에 위치한다.

분양문의: 053-427-0120

박류석/대기자

